

李 德 根 教 授 指 導
碩 士 學 位 論 文

濟州 歷史에서 드러나는
恨의 意味

2004年

光 州 가 톨 릭 大 學 交 大 學 院
實 踐 神 學 專 攻
洪 錫 允

濟州 歴史에서 드러나는 恨의 意味

指導教授 李 德 根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光 州 가 톨 릭 大學 交 大學 院
實 踐 神 學 專 攻

洪 錫 允

論 文 認 准 書

洪錫允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主審: 이 덕 근 印

副審: 송 동 립 印

副審: 윤 양 호 印

2004年

光 州 가 톨 릿 大 學 校 大 學 院

<제 목 차 례>

서론	1
I . 문제제기	1
II . 연구 방법	3
본론	5
I . 한(恨)의 의미와 발생원인	5
1. 한(恨)의 의미	5
2. 한국 역사 속의 민중	19
1) 민중의 개념	19
2) 민중의 공유체험으로서의 한(恨)	23
3. 한(恨)의 발생원인	25
II . 제주 역사에서 드러나는 한(恨)	30
1. 체념적 한(恨)	31
1) 자연환경	32
2) 고려사	34
3) 조선 전·중기의 제주도	40
4) 체념적 한(恨)의 역사	44

2. 현실변혁적 한(恨)	49
1) 조선 후기 민란	50
2) 신축년 민란	61
3) 일제강점기	82
3. 수용적 한(恨)	90
1) 시대적 배경	92
2) 4·3에서 나타나는 수용적 한(恨)	102
 결론	 112
 <참 고 문 헌>	 116

서론

I. 문제제기

오늘날 제주도는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인하여 관광지로써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수많은 호텔과 골프장, 각종 유흥업소 등 제주도는 화려한 조명으로 밝게 보인다. 또한 국제 자유화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제주도는 한창 투자 분위기에 들떠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제주 민중들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질 때, 과연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화산지대로 이루어진 제주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바람과 비가 많아 땅을 일구어 살기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제주 민중들은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에서 많은 수탈과 침략으로 인하여 생활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주 민중들은 나름대로 한(恨)을 간직하게 되었다. 이 한(恨)은 결코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것이다. 아니 오늘날 새로운 한(恨)이 맺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 민중에게 맺혀진 한(恨)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한(恨)이 많은 민족이라고 불리어 왔다. 한(恨)은 우리 민족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뿌리깊은 삶의 감정이요 정서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한(恨)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 한국민중의 기본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恨)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응답하기 위하여 민속학·종교학·정신분석학·문학·사회학·신학 등의 분야에서 한국적인 것을 찾기 위해 민속신앙이나 민속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결과, 한(恨)이 의미 있는 문제의 초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¹⁾

이에 맞추어 제주 민중에게 맺혀진 한(恨)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밝히고 있는 바대로 선교지역의 교회가 교구적으로 형체를 갖추면서 그에 필요한 성직자 양성에 있어 “사목과 실천을 겸한 사제의 양성에 있어 공통된 요청은 공의회의 규범에 의하여 각 민족의 고유한 사고와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연구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학생이 자기 민족의 문화를 잘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평가하도록 그 정신을 열리게 하고 연마케 하며 철학과 신학의 과목에 있어서는 모국의 전통과 종교와 그리스도교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파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또한 사제 양성은 그 지역의 사목상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학생은 교회의 선교 활동의 역사, 목적 및 방법을 배우며 자기 민족의 특유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태를 알고 또 교회 일치의 정신을 가져 교육되고 비그리스도교인들과의 형제적 대화에로 올바르게 준비되어야 한다”²⁾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恨)은 한민족의 기본 정서이다. 제주 민중 역시 한(恨)민족의 구성원으로써 한(恨)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한(恨)의 의미를 밝히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신학의 토착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 할 수 있게 된다.

1)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1985, 11 참조.

민속학 분야에서는 김열규, 「한맥원류」, 주우, 1981 ; 최길성, 「한국인의 한(恨)」, 예진, 1991.이 있고, 정신분석학 분야에서는 이호영의 “정신분석학자가 진단한 한국인의 성향”, 문학 분야에서는 문순태의 “한(恨)이란 무엇인가”, 임현영의 “한(恨)의 문학과 민중의식”; 사회학분야에서는 이효재의 “한국인의 한(恨)”, 한완상·김성기의 “한(恨)에 대한 민중사회학적 시론” 등이 있다. (위의 글들은 서광선 엮음, 「한의 이야기」, 보리, 1987에 들어있다.) 신학 분야에서는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한길사, 1983 ; 김정준, “한의 신학”, 「한국과 신학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83 ; 서광선의 “한의 이야기와 사제적 실천” ; 현영학의 “민중신학과 한의 종교” ; 문동환의 “한 - 새 삶의 기점” 등이 있다.(위의 글들은 서광선 엮음, 「한의 이야기」, 보리, 1987에 들어있다.)

2)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 16항.

따라서 본 논문의 기본 관점은 한(恨)이 ‘민중의 엄연한 고난의 현실’을 지칭하는 개념이면서도 동시에 ‘해방을 추구하는 원동력이요 힘’이라는 사실을 살펴봄과 동시에 궁극적인 한(恨)의 의미를 살펴보고 한(恨)의 해방을 위한 장(場)이 무엇인지 제주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그러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본론 I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한(恨)의 의미를 살펴보고 한(恨)맺힌 민중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恨)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이때 주목할 것은 한(恨)이 체념적이거나 현실변혁적 의지라 할 수 있는 것은 한(恨)의 표출 방식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한(恨)의 의미는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II에서는 I에서 살펴본 한(恨)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제주 역사에서 드러나는 한(恨)의 의미를 재 조명해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 역사를 ‘체념적 한(恨) 시기’, ‘현실변혁적 한(恨) 시기’, ‘수용적 한(恨) 시기’로 구분하였다. 체념적 한(恨) 시기는 고려사를 시작으로 하여 조선 전·중기까지를 설정하였는데, 민중의 자아의식이 성장하지 못한 원인과 저항하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에 중점을 두어 살펴볼 것이다. 현실변혁적 한(恨) 시기는 조선 후기 민란을 시작으로 하여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까지를 설정하였다. 이 시기는 자아의식의 성장과 함께 조직적인 저항의식의 성장으로 인하여 한(恨)맺힌 것을 풀고자 현실 변혁적 의지로 한(恨)을 표출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수용적 한(恨) 시기는 20세기 가장 비극적이라 할 수 있는 4·3항쟁과 그 후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화해와 용서하고자 하는 제주 민

중의 마음에서 진정한 한(恨)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민중의 가슴 속에 맺혀진 한(恨) 속에 뛰어 들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이는 교회의 사회 참여 문제가 될 것이므로 교회의 사회참여의 당위성과 사회 참여 방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본 논문을 마칠 것이다.

본론

I. 한(恨)의 의미와 발생원인

한(恨)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체계를 단 한두 마디의 말로써 뚜렷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한(恨)은 “그 쓰임새의 역사성과 보편성, 그리고 다양성”³⁾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그들 나름대로 한(恨)을 규정한 것을 보면 서로 엇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종종 상이한 시각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면 먼저 궁극적으로 한(恨)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한(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恨)을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을 정리해보고, 한(恨)의 발생 원인과 한(恨)의 주체인 민중에 대하여 살펴보자.

1. 한(恨)의 의미

한(恨)의 역사적 위상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恨)의 의미를 모색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恨)의 의미를 규정하는 작업은 곧 한(恨)이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 왔으며 또 역사 안에 어떤 작용을 해왔는지를 파악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恨)의 의미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는 한(恨)이 단순히 박물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정신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역사발전의 창조적 역량이라는 사실

3) 한완상김성기, “한에 대한 민중사회학적 시론”, 「한의 이야기」, 보리, 1987, 64 참조.

을 확인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한(恨)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현재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전을 보면 한(恨)이란 “욕구·의지의 좌절에 따르는 삶의 파국에 대처하는 편집적(偏執的)·강박적인 마음의 자세와 상처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얹힌 복합체이다. 한(恨)의 소극적이고 1차적인 감정은 마음에 맺힌 상처나 탄식 등 정신적 어혈을 체념 속에 묻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2차적인 감정은 그것이 원(怨)과 결합되면서 증오심을 동반하여 복수심으로 발전된다”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한(恨)과 유사한 개념을 다른 나라에서 살펴보면, “고대 인도에서는 범어 ‘우파나하’(Upanāha)로 표기한다. 그것은 진작 고대인도 삼림 철학의 사유에 의해서 인간의 감정을 일백 가지로 분류하는 감정체계의 환성을 통해서 그 감정의 하나, 곧 ‘백법’(百法)의 하나를 말한다. 이 용어는 ‘우파니샤드’로서의 공여적 존재, 상대적이지 않는 상태의 공관·공생을 뜻함으로써 대승적인 사회 정의와 덕·자애를 강조하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개념인 격렬한 보복 감정의 극한으로 전화되었다. 중국의 ‘헨’(hen, 恨) 역시 ‘원극야(怨極也)’로서 극한의 원한과 복수 또는 증오·저주를 담고 있다. 이 밖에 한(恨)의 감정이 망라되는 문자는 무려 70여 개가 넘는다. 몽고어로 한(恨)은 ‘코로술’(Horosul)이며 만주어로는 ‘코르소추카’(Korsocuka)이다. 코로술은 고대 인도와 중국의 한(恨)과는 달리 다만 ‘한스럽다’, ‘비애’, ‘우울’ 따

4) 동서문화, “한”, 「세계 대백과 사전 29」, 동서문화, 1995, 서울, 17270.

한(恨)과 원(怨)의 관계에 대하여 최상진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대한 분석을 적어놓고 있다. 그에 따르면 “김열규는 한(恨) 속에 원(冤)으로서의 한(恨)과 한(恨)으로서의 한(恨)을 모두 포함시켜 놓고 있다. 김용운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 한(恨)이 오래지나 원(冤)에 이르는 의식구조가 형성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대현은 ‘한(恨)의 개념적 구조’라는 제목에서 한(恨)과 원(冤)을 대상 대비대상, 지향성 대 비지향성의 차원에서 파악한다. 그리고 한(恨)과 원(冤) 모두 부당 및 불의에 의해서 생성되나 한(恨)은 불의를 불의로 인식하지 않고 원(冤)은 불의를 인식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한(恨)과 원(冤)의 발생 원천인 좌절은 기본적으로 이 좌절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성보다는 외적 억압 상황에 기인하며, 이 좌절은 한(恨)과 원(冤)의 발생에 거의 전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恨)은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최상진, 「한(恨)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2003년), 2-5참조.

위를 뜻하지만 만주어의 뜻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곧, 청조시대까지만 해도 ‘화가 난다’, ‘증오한다’ 등의 야성적인 감정을 뜻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예기치 않은 일에 대한 슬픔’이나 ‘부모의 사망을 슬퍼하는 일’ 등과 함께 ‘슬픔’, ‘슬프다’의 뜻으로 변화하였다”.⁵⁾

앞서 살펴본 한(恨)과 유사한 개념들은 다음의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우리 민중의 한(恨)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최상진은 한(恨)에 대한 “심리학적 개념화라는 분석적 작업”⁶⁾을 통해서, 한(恨)은 “성격특성으로서의 한(恨) 특성(Hahn Trait), 감정 상태로서의 한(恨) 센터먼트(Hahn Sentiment), 흥분된 정동 상태로서의 한(恨) 감정(Hahn Emotion)을 들 수 있다. 먼저 성격특성으로서의 한(恨) 특성을 불안의 경우와 유추시켜 설명하면, 성격특성으로서의 불안⁷⁾에 해당된다. 한(恨) 센터먼트는 위의 성격상태와 연계된 감정적 정조(情操)체계⁸⁾를 말한다. 한(恨) 정동은 초기 한(恨) 상태에서 불행에 대한 원망감, 적개심이나, 후기상태에서의 자책의 감정 등을 들 수 있다”⁹⁾고 구분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 한(恨)의 일상적 용어 ‘한 맺힌다’, ‘한스럽다’, ‘한이다’를 통해 한의 심리적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데 “초기 상태의 한은 원에 가까우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원의 표적이 불분명하고 원망의 강도가 낮은 자기 책임 지

5) 고은, “한의 극복을 위하여”, 「한의 이야기」, 보리, 1987, 33-34 참조. : 일본이나 서양의 경우 역시 우리나라 한과 유사한 단어를 찾아 볼 수는 있으나 여기에서 다른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고 한과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기에 굳이 다루지 않는다.

6)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한에 대한 작업은 ‘한 감정이 분노나 적개심과 같은 특정 대상을 지향해서 발기된 emotion인지 아니면 대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sentiment와 같은 정서체계인지를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감정을 혼용하고 있으며, 한과 원을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한의 유형은 물론 시간적 경과에 따른 한 감정 및 한의 인지적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욕구 좌절로 인한 흥분된 세속인의 한 감정과 순화되고 승화되며 정렬된 문학 속의 한 정서, 한국인의 성격특성으로서의 한 성격과 세속적 한풀이 형태의 한 감정을 구분하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한의 발생 구조적 조건 분석도 미흡한 상태’라고 비판하면서 한에 대한 심리학적 개념화 시도를 주장한다. : 최상진, 앞의 책, 7.

7) 허무주의적 성격, 현실 초월적 성격, 비판적 성격, 운명론적 귀인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8) 쓸쓸함을 느낀다든가, 무상함을 느끼는 정초체계를 말할 수 있다.

9) 최상진, 앞의 책, 8참조.

향적 자기 수용의 속성과 연계된 ‘그저 허무하고 서러운 일반화된 선택의 순화된 형태로 변질된다’¹⁰⁾고 하면서 원이 한(恨)에 우선하는 것이며, 원이 한(恨)으로 변화한다고 보고 있다¹¹⁾. 그러나 결국에 그는 한(恨)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거론할 학자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한(恨)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근원적인 시각에서 한(恨)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는 곧 한(恨)을 인간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비극성으로 보는 견해인데 박경리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한(恨)이란

“ ... 제가 의식을 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무엇인가 인간에게 존재하는 근원적인 한 같은 것이 있어요. ...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모두 그 나름의 한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고 가슴아픈 이별일 수 있는 그런 한 속에 살며, ...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닌가 해요. ... 말하자면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 삶 자체 ...”¹²⁾

라고 한다. 즉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각기 나름의 한(恨)이 존재하며 인간은 모두 한(恨)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인간이 신이 아니라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³⁾ 이러한 견해는 한(恨)을 인간의 근본문제로 여겨 한(恨)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의 인간 삶의 뿌리깊은 비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극성이 인간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삶과 닿아있지 못했을 때는 한(恨)을 자칫 탈

10) 같은 책, 8 참조.

11) 본 논문에서는 한과 원을 구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에 그저 한은 수동적인 상태로, 원은 능동적 상태로써만 이해한다. 그러므로 제주 역사를 통해 한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통합적 의미에서의 한으로 서술해나갈 것이다.

12)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179; 문순태, 앞의 글, 143-144(주23)에서 재인용.

13) 문순태, “한이란 무엇인가”, 『한의 이야기』, 보리, 1987, 144 참조.

역사화시키거나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정신화시키고 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恨)을 소극적, 체념적 정서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는 한(恨)이 현실적 절망과 좌절, 희망의 상실로 비롯한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변혁의 적극적 힘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절망으로 축소되거나, 해소될 수 없는 깊은 체념으로 머물고 만다는 관점이다. 한승원, 조정래, 백낙청, 고은 등이 이러한 시각으로 보는 대표적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도 약간의 차이는 드러난다.

예를 들면, 백낙청은

“한이란 원한과도 달라서 내 불행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한테 양값을
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설움이요, 이름 없는 아픔”¹⁴⁾

이라고 하면서 한(恨)의 역사적인 성격을 살피려 하지 않고 그것을 미화하거나 사사로운 목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⁵⁾ 물론 그의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지만 한(恨)의 발생과정에서 한(恨)을 가한 대상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대상을 뚜렷이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恨)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나마 역사 속에서 그것이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조정래의 경우 한(恨)은

“불평등한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무참하게 짓이김을 당한
감정의 줍”¹⁶⁾

이라고 하면서, “한(恨) 속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오

14) 백낙청, “민중은 누구인가”, 『한국민중론』, 한신연, 1986, 28.

15) 위의 글, 28 참조.

16) 조정래, “한의 본질”, 『월간문학』(대담) 195호, 1982, 16.

욕의 역사가 서려있다고 보지만 한(恨)이란 행동이 아니라 단지 가슴
앓이 끝에 생겨난 차돌 같은 앙금에 불과한 것”¹⁷⁾으로 본다.

천이두의 경우 역시 한(恨)을 패배주의적인 정서로 보는 관점에 속
하는데 그에 따르면

“한이란 그 속성적 조건으로서 적극적 측면보다는 소극적 측면을, 진
취적 측면보다는 퇴영적 측면을, 미래를 향한 측면보다는 과거로 향
한 측면을, 투쟁과 승리를 향한 측면보다는 회피와 좌절을 향한 측면
을 간직하고 있다”¹⁸⁾

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일면적, 부분적인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한(恨)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恨)의
적극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은의 경우는 한(恨)의 의미구조를 다양한 관점에서 천착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점과 전적으로 일치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한(恨)을 소극적 체념적 정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다루기
로 한다. 그는 한(恨)을

“삶의 운행을 적극적 의지와 용기 또는 모험으로 이끌어나가기를 체
념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긴 무상감의 세계”¹⁹⁾

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한민족의 역사가 곧 한(恨)의 변질 과정”²⁰⁾이
라는 주장에서 그의 관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한(恨)의 변질 과정에서 한(恨)의 진정한 비밀이 숨어있는 것인지

17) 위의 글, 19-20 참조.

18) 천이두, “전통의 계승과 그 극복”, 「문학논쟁집」, 344 ; 임현영, “한의 문학과 민중의식”,
「한의 이야기」, 보리, 1987, 105에서 재인용.

19) 고은, “이 땅에서 한은 무엇인가”, 「계간사상」, 사회과학원, 1990, 52-53.

20) 위의 글, 83.

도 모른다고 하면서 한(恨)의 역할이 이제까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발전할 여지에 대한 희망까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²¹⁾ 그래서 그는 “한(恨)은 오늘의 한(恨) 개념이 있기까지 변질, 전락으로만 일관한 것이 아니라 민중적, 민족적 정서의 본질을 촉발함으로써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는 삶의 정서로 인식하는 차원”²²⁾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恨)을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은 한(恨)을 적극적, 현실변혁적 의지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민중에게 있어 한(恨)이 단순히 체념적, 패배주의적인 정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적극적이고 저항적인 현실변혁의 의지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보이는 이들로서는 한승원, 임헌영, 한완상, 김지하, 김정준, 서남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안에서도 적잖은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앞의 두 번째 관점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먼저 한승원의 경우, 그는 한(恨)을 복수의지나 퇴폐적인 정서, 혹은 슬픔 따위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극복의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극복의지야말로 우리 역사를 면면히 이어준 정서라고 주장한다.²³⁾ 그러면서 그는 “한(恨)이란 풀려고 해도 풀려지지 않고 다시 맺혀질 뿐이다. 다만 극복되지 않는 가운데 극복의지만 남길 뿐”²⁴⁾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恨)은 생명력이 가장 강한 사람에게만 맺혀지는 것이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포기해버려 한(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恨)의 정서 속에는 풍자와 해학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한(恨)의 정서 속에 극복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²⁵⁾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그는 복수의지와 극복의지를 구별하고 있지만 이 구별은

21) 위의 글, 83 참조.

22) 위의 글, 83.

23) 한승원, “한(恨)의 극복의지”, 「월간문학」(대담)165호, 1983, 18 참조.

24) 위의 글, 20.

25) 위의 글, 17 참조.

다소 애매하다. 또 생명력의 유무에 따라 한(恨)이 맺혀지고 맺혀지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은 한(恨)이 민중의 보편적인 정서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의 말대로 ‘한(恨)을 풀려고 해도 풀려지지 않는 그리고 극복되지 않고 극복의지만 남길 뿐’이라는 주장은 한(恨)이 곧 표출과정에서 해소되고 또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임현영은 「한의 문학과 민중의식」이라는 논문에서 “민중적 삶을 증언한 많은 문학들은 오히려 역사 속에서 혁명의 발화작용을 했음을 문학사는 보여주고 있다”²⁶⁾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한(恨)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혁명이 없었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가설은 혁명과 한(恨)의 의미를 둘 다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우리 민족사에는 찬란한 혁명의 전통과 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한(恨)을 역사의 퇴영적 산물이라고 보는 견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²⁷⁾

김지하는 “풍자냐 자살이냐”라는 글에서 폭력의 경험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한(恨)이 폭력적 에너지 혹은 힘으로 전환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한은 생명력의 당연한 발전과 지향이 장애에 부딪쳐 좌절되고 또다시 좌절되는 반복 속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정서의 형태이며, 이 반복 속에서 퇴적되는 비애의 응어리”²⁸⁾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애의 응어리’로써 한(恨)은 해소될 수 없는 비애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비애가 한(恨)의 탄탄한 도약대로써 그 미는 힘에 의거하여 불신의 폭력에 항거한다.²⁹⁾ 즉 불신의 폭력으로부터

26) 임현영, “한의 문학과 민중의식”, 「한의 이야기」, 보리, 1987, 127.

27) 위의 글, 129 참조.

28) 김지하, “풍자냐 자살이냐”,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 동광출판사, 1984, 173

29) 위의 글, 173.

터 경험하게 되는 비애의 총체로써 한(恨)은 오히려 바로 그 폭력에 기인하여 폭력적 힘으로 전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이 없으면 비애도 없고, 비애가 없으면 폭력도 없다.”³⁰⁾ 결국 그에게 있어 한(恨)이란 민중에 대한 지배자의 가렴주구로부터 기인하는 억압의 감정적 축적인데 ‘쌓이고 쌓인 한(恨)이 유전하고 전승해서 민중의 피 속에서 끓고 있으며’ ‘반체제적 사상과 행동의 정서적 핵심’인 것이다.³¹⁾

한완상의 경우는, 민중사회학적인 시각으로 한(恨)의 의미와 역사적 성격을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恨)은 민중의 실존적 체험임과 동시에 역사적, 사회적 체험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중의 한(恨)은 억울하고 비참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고 표출된다.³²⁾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그는 한(恨)이란

“ ... 원죄 상태와 같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인간조건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민중의 일상체험 속에서 생긴 것인데, 주로 현실세계에서 부당하게 눌러왔던 것과 억울하게 꺾여진 것들이 모여 축적되어 온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복합체”³³⁾

라고 규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중의 한(恨)이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한(恨)은 개인적인 것 같으면서도 공동체적인 체험이요, 좌절된 욕구나 소망인 것이면서도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힘”³⁴⁾으로써 작용하기도 하고 ‘슬픔이자 힘이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관문’, ‘자기실현과 새 사회를 위한 저항 정신’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³⁵⁾ 이처럼 그는 한(恨)을 이

30) 위의 글, 173.

31)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한길사, 1986, 100 참조.

32) 위의 글, 100 참조.

33) 위의 글, 65.

34) 위의 글, 67.

중구조, 즉 ‘개인적인 체험 - 공동체적 체험’, ‘좌절된 욕구 - 미래의 삶을 열어주는 힘’ 또는 ‘슬픔 - 힘’, ‘절망 - 희망’으로 파악하면서 한(恨)을 현실변혁의 가능성 혹은 동인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한(恨)의 현실 변혁적 의지의 표출을 종교(무)와 예술(탈춤)에서 모색하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든 한승원, 임현영, 김지하, 한완상 외에도 문동환, 김정준, 서남동 등이 대체로 이러한 세 번째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문동환은 한(恨)을

“삶을 짓밟는 악한 세력을 향한 영혼의 꺼질 줄 모르는 분노의 불길ियो 못다 산 삶에 대한 끊을 수 없는 미련의 줄ियो,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여원한 호소”³⁶⁾

라고 규정하면서

“누구나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을 몸으로 부인하면서 스스로의 사람됨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실존의 외침”³⁷⁾

으로써, 성서에서 히브리인들과 하느님의 만남은 한(恨)을 매개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즉 에집트왕 파라오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비롯된 히브리인들의 한(恨) 맺힌 삶을 굽어보신 하느님께서 한(恨)의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여 새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다.³⁸⁾

35) 위의 글, 96 참조.

36) 문동환, “한-새 삶의 기점”, 「한의 이야기」, 보리, 1987, 346-347.

37) 위의 글, 347.

38) 위의 글, 356 참조.

따라서 그는 한(恨)을 ‘하느님과 민중이 심층에서 만나는 자리로 보고, 바로 거기에서 역사가 변혁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³⁹⁾

김정준은 한(恨)을 신학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보다 인간고의 역사적 현실 속에 하느님 자신이 동참하여 인간과 함께 고통 당하심으로 인간에게 새 생명, 새 희망을 주셨기 때문이며,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한(恨)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⁴⁰⁾ 그는 한(恨)의 문제가 “비극과 고통, 억울함과 압박과 같은 인간의 최악의 현실과 직결”⁴¹⁾되어 있다고 보며 이러한 한(恨)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고통 당하는 상황과 ‘애가’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망국의 한(恨), 그리고 시편 13편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비극과 고난을 들고 있다.⁴²⁾ 그러나 그는 한(恨)의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써 고통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만을 강조하고 역사적 해방실천에의 투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서남동은 한(恨)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 첫째는 약자의 패배의식, 허무감과 체념이 지배하는 감정상태이며, 둘째는 약자로서의 삶의 집념을 담고 있는 감정이다. 첫 번째 측면은 경우에 따라 승화되어 훌륭한 예술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측면은 종종 혁명이나 반란의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약자의 체념을 승화시킨 예술로 판소리와 탈춤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한(恨)의 표현체로서의 판소리와 탈춤이 피지배자들의 자기 비판과 아울러 지배계층의 도덕적 모순을 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눌린 자의 삶의 집념으로서의

39) 위의 글, 359 참조.

40) 김정준, “한(恨)의 신학”, 「한국과 신학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83, 426 참조.

41) 위의 글, 416.

42) 위의 글, 415-417 참조.

한(恨)은 망이 망소이의 난, 만적의 난, 홍경래와 임술민란, 갑오농민 전쟁, 활빈당 투쟁, 3·1운동, 4·19혁명 등의 민중운동의 전통에서 현실 변혁의 의지로 분출했다고 본다.⁴³⁾

지금까지 다루어온 한(恨)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첫째 한(恨)을 인간의 근본적인 비극성으로 보는 관점과 둘째 한(恨)을 체념적, 소극적 정서로 보는 관점, 셋째 한(恨)을 적극적, 현실 변혁적 의지로 보는 관점 등이 그것이다.

첫 번째의 관점의 경우, 한(恨)을 탈 역사화, 관념화시키는 한계를 가지며, 두 번째 관점의 경우, 한(恨)을 지나치게 패배주의적인 정서로 보는 편향을 보임으로써 한(恨)을 바라보는 총체적 시각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恨)이 역사적 변혁의 의지로 작용한 사실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으며, 세 번째 관점의 경우, 두 번째 관점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한(恨)의 현실 비판적이고 현실변혁적 의지로서의 측면을 나타내면서도 한(恨)을 가한 이들과 한(恨) 맺힌 이들에 대한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恨)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관점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합적인 한(恨)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恨)이 표출되는 상태를 통한 의미 분석에 그친 듯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구분 자체가 역사를 바탕으로 할 때, 단계적일 수 있다는 전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체념적이며 현실 변혁적 의지라는 것만으로는 한(恨)의 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지 못한다. 즉 한(恨)이라는 것이 생기는 데 있어서 동시에

43) 서남동, 앞의 책, 87-88 참조.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한(恨)에 대한 해방이기 때문에 한(恨)의 발생 원인을 고려하여 한(恨)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恨)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민중은 다양한 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왔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恨)의 발생과정에서 한(恨)을 가한 대상의 존재가 분명하고 한(恨)이 맺힌 주체의 존재가 분명함에도 한(恨)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아니하고 현실에서 더욱 쌓여왔기때문에 한(恨)의 의미 파악이 더욱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한(恨)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찾아야 할 궁극적 의미는 무엇일까.

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진실을 고려하여 화해와 용서를 희망하는 한(恨)의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화해와 용서를 염원하는 한(恨)이 짓밟히어 체념적일 수밖에 없는 한(恨)으로 드러나고,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의지로써 표출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해와 용서를 염원하는 한(恨 : 수용적 恨)이 체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민중 의식이 성장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며, 현실 변혁적 의지로 표출된다는 것은 민중 의식의 성장으로 체념적일 수밖에 없었던 한(恨)을 해소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변혁적 의지는 한(恨)을 가한 대상의 위치가 중요하다. 자신들이 한(恨)을 가하는 존재임을 자각하여 한(恨)을 해소하는 데 동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恨)의 궁극적 의미를 생각하고 한(恨)의 해방을 위한 장(場)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본 논문의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恨)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화해와 용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한(恨)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또한 역사의 중심에 있는 민중의 한(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체념적인 한(恨) 개념과 현실 변혁적 의지인 한(恨)이 역사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전개해 나가하고자 함을 우선 밝힌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민중의 염연한 고난의 현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동시에 ‘해

방을 추구하는 원동력이요 힘'이 되는 한(恨)의 궁극적 의미가 화해와 용서를 염원하고 있는 상태임을 제주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 역사 속의 민중

1) 민중의 개념

과연 한(恨) 맺힌 민중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민중에 대한 사전적 정의 및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세계 대백과 사전」은 민중을 “세간의 일반 사람·보통사람을 가리킨다. 여느 사회적 여러 집단과의 관계에서, 계급관계로는 지배계급이 아닌 피지배계급이고, 사회계층으로는 각기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생산에 종사하는 직접생산자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역사사회를 떠받치는 기저층(基底層)이라 할 수 있다. 또 유사한 여러 개념과의 대비(對比)에서 보면 인민·상민을 포괄하여 그 기반을 이루는 개념이며 영어로는 people(독일어 Volk, 프랑스어 peuple)로 공칭 된다”⁴⁴⁾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어대사전」은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일반국민으로써 흔히,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⁴⁵⁾”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남동 교수는 민중에 대한 의미를 세 측면으로 살핀다. “첫째는, 인간성이나 인간적이라는 말 대신 민중이나 민중적이라고 쓴다. 그래서 민중은 집단적 개념이며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둘째는, 백성과 대조하여 백성의 굴레를 벗었다고 하는 자각에서 민중이라는 말을 쓴다.

44) 동서문화, “민중”, 「세계 대백과 사전 10」, 동서문화, 1995, 서울, 5993 참조.

45) 김민수 외 3, “민중”,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년, 서울, 1110 참조.

곧 민중은 백성이라는 복종의 내면화를 떠나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셋째는, 외세의 강점 아래서 저항하면서 민족의 주체성을 찾으려고 투쟁한 제 3세계의 민중이다⁴⁶⁾”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완상은 민중의 사회학적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통치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집단과, 생산 분배 및 소비 전반에 걸친 행위와 작용을 관장하는 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집단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을만한 문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민중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과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 즉 통치수단을 장악한 집단이 곧 그 지배세력이 되므로 민중은 정치적 피지배 집단”⁴⁷⁾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해이다.

이처럼 민중이라는 개념 자체는 민중론자들이 이해함에 있어서도 서로 일반화된 정의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 제설을 종합하여 볼 때, 첫째로 민중은 역사의 주체이고 사회적 실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민중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지배 관계에서 피지배층을 의미할 수 있다. 셋째로, 민중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파악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오랜 세월 동안 민중은 지배세력의 대상이 되었을 뿐 역사의 표면에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또한 기록을 통해서 민중들의 과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중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국사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층세력이었던 민중 없이는 사회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민중이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존재였고, 지배세력은 오직 민중에 의존해서만 그 존립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⁴⁸⁾ 그런데도 민중은 역사발

46)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한길사, 1983, 205-218 참조.

47) 한완상, 「한국 민중론」, 한국신학연구소, 1984, 260-272 참조.

48) 이기백, 「한국사신론(신개정판)」, 일조각, 1991, 492 참조.

전의 주체로서 옳게 평가되기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제반측면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 그뿐 아니라 민중은 한국사의 전 과정을 통해 항상 천대와 수모를 받아 왔으며 지배세력의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문화적 소외,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 등으로 역사의 장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못한 채 노예적 삶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왔다. 또한 민중의 삶은 비단 지배세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수많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역사 속의 민중은 그저 고스란히 지배세력과 외세의 억압을 피동적이고 숙명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저항하여 왔다. 즉 한국역사 속의 민중은 “고대 봉건왕조에서는 지배층 존립의 바탕으로 존재하였고 13세기 몽고침략 이후에는 대외항쟁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임진왜란과 한말 일제침략기에 더욱 부각되었으며, 특히 19세기 봉건말기의 부패, 무능한 정권 하에서는 반봉건 사회개혁운동의 주체로서 활약하다가 국권이 강탈된 후에는 독립투쟁, 민족운동의 주역으로서 등장”⁴⁹⁾하였던 것이다. 특히 고려 이후 역대정권의 담당자들이 외세의 침략에 민족적 결속력을 강화하지 못하고, 가능한 한 침략세력에 타협하려 하면서 자신들의 기존의 지위 유지에 급급한 반면, 대외 관계에 있어 우리 나라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민중의 힘 때문이었다.⁵⁰⁾ 이처럼 민중은 “권력층이 그릇되게 이끌어 가는 역사의 궤도를 그때그때 비판하며 바로 잡으려는 밑으로부터의 항쟁의 중핵이었으며, 민족과 나라가 위기에 직면하거나 무너지게 될 때마다 그 존망의 고비에서 민족혼의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행동 속에 자기를 온 몸으로 바쳤던”⁵¹⁾존재였다. 그리고 이러한 민중의 저항은 “역사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⁵²⁾가 되었고 한국역사 발전의 토대가 되었

49) 이만열, “민중의식 사관화의 시론”, 「한국민중론」, 한국신학연구소, 1984, 214.

50) 위의 글, 205 참조.

51) 김병길, “민중과 문학”, 「한국민중론」, 한국신학연구소(한신연), 1984, 57.

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민중의 능동적, 주체적 자기확인으로서의 저항이 한국역사 전 과정 속에서 전적으로 민중의 승리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민중의 저항의 결과는 항상 패배와 실패로 끝났다. 한국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민중들의 항쟁의 역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차라리 좌절과 실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³⁾

그러면 이제 한국역사의 맥락 안에서 볼 수 있는 민중의 좌절의 역사가 민중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경험되며, 또 그 경험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2) 민중의 공유체험으로서의 한(恨)

역사는 경험의 공유(共有)와 그 보편성의 인식이다. 그러므로 민중의 체험은 특수하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공유적인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민중상호 간의 접촉과 지배세력에 대한 투쟁의 과정에서 민중의 공유적인 체험으로서 자각되고 어떤 추상적인 가치 가운데 응축되어 감에 따라 민중의식은 보다 높은 차원의 것으로 진보해 가며, 이 과정에서 민중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자기성격을 굳혀간다.⁵⁴⁾ 그리고 민중은 지배세력에 의한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문화적 소외로부터 깊은 좌절감과 아울러 분노를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한(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한(恨)은 민중의 삶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중 공동체 전체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민중의 공유적인 체험이다.⁵⁵⁾

52) 이기백, 앞의 책, 493

53) 한국정치연구회, 「한국 정치사」, 백산, 1990, 439 참조.

54) 박현채, “민중과 경제”, 「한국민중론」, 한신연, 1984, 225 참조.

55) 한완상·김성기, “한에 대한 민중사회학적 시론”, 「한의 이야기」, 보리, 1987, 67 참조.

우리는 이러한 민중의 공유체험을 루마니아의 사회학자이자 역사심리학자인 제베데이 바르부의 ‘집합적 정동체험’(collective emotions)이라는 개념에 의존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집합적 정동체험이란 ‘일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집단에게 특유한 감정의 복합, 또는 특유한 정동적 경향 및 태도의 유형’을 의미한다.⁵⁶⁾ 즉 이는 어떤 공동체의 성원들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집합적인 공포와 불안, 분노, 황홀감 같은 일련의 두드러진 감정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어떤 공동체 고유의 감정 혹은 정동적 태도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안에서 생성되어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그 성원들의 행동을 규정한다.⁵⁷⁾ 제베데이 바르부의 이와 같은 집합적 정동체험이라는 개념은 한국민중에 있어서는 바로 ‘한(恨)’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한(恨)이라는 것이 “한국 민중의 삶에 가장 널리, 그리고 깊이 뿌리내려 있는 이중감정”⁵⁸⁾임을 인식한다면 민중은 오랜 역사과정 속에 지배세력에 의한 억압의 결과로써 한(恨)을 경험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恨)이라는 것이 폐쇄되고 고립된 한 개인만의 경험내용이 아니라 민중의 집단적인 공유체험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앞서 밝힌 것처럼 한(恨)은 민중공동체 전체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恨) 맺힌 민중에 대해 살펴본 것은 역사를 통해 한(恨)의 해방을 위한 하나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한(恨)을 가한 존재를 알게 해준다. 그럼 민중공동체 전체의 삶과 연결된 한(恨)은 역사 안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56) 제베데이 바르부, 「역사심리학」, 임철규 역, 창비, 1983, 23 ; 여기에서 정동(emotion)이란 개념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인의 일시적인 심리적 반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인 차원과 문화적인 차원에서 쓰여 지는 개념이다 : 한완상·김성기, 앞의 글, 63에서 재인용.

57) 한완상·김성기, 앞의 글, 63-64 참조.

58) 위의 글, 64.

3. 한(恨)의 발생원인

한(恨)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또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恨)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恨)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곧 한(恨)의 역사적 성격(역사적 위상)을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한(恨)의 원인을 설명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다루어 보기로 하자.

먼저 심리학 교수인 최상진은 한(恨)의 원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한다. 즉 그는 “첫째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을 때 한(恨)이 결과 될 수 있는 상황을 들면서, 상민이 부당하게 양반에게 무시당할 때, 서민이 부당하게 관료에게 핍박받을 때, 못 가진 자가 부당하게 가진 자에 의해 피해 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한(恨)이 나타난다. 이러한 부당한 차별대우에 대한 억울함의 인지와 감정이 욕구좌절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둘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심각하게 결핍되었거나 일반 타인에 비교해서 필요한 것이 상대적으로 현격히 결핍(discrimination)되었을 때, 한(恨)이 발생한다. 이 상황은 차별대우와 비교할 때, 욕구좌절의 면에서는 유사하나, 욕구좌절의 원천이 제삼자나 제삼자 집단이라기보다는 보다 애매한 비인적 요인에 의해 결과 된 결핍 내지 박탈된 상황이다. 예컨대, 가난하다던가, 자식이 잘못되었다던가, 원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팔자나 운명 등으로 그 원인을 돌리면서 자신을 한탄하는 경우이다. 셋째로 자기 자신의 지울 수 없는 실수에 의해 만들어진 욕구좌절이나 불행과 연계된 한(恨)을 말한다. 예컨대, 살아생전 불효하던 자식이 부모의 사후에 이를 후회하는 상황과 결부된 뉘우침의 고통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쉽게 설명하

자면, 부당한 차별 및 업신여김 당하는 한(恨), 불행성 결핍의 한(恨), 취소불능성 자기실수의 한(恨)으로 명명해볼 수 있다”⁵⁹⁾라고 하면서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속학자인 김열규는 한(恨)의 원인을 네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즉 그는 한(恨)의 원인을 “거듭된 외국의 침략, 중세기의 정치적인 고질적 침학, 그리고 내림으로 물려받은 저주스런 가난, 거기다 대가족 제도가 빚은 혈연간의 갈등(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과 같은)”⁶⁰⁾으로 부터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것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 무서운 콤플렉스를 형성했다”⁶¹⁾고 한다.

문순태는 「한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한(恨)은 “불안과 위축이 계속된 치욕의 역사가 빚은 빈궁과 실의와 한탄의 숙명적 비극에서 비롯”⁶²⁾되었다고 한다. 즉 “끊임없이 침입해 오는 외세의 압박, 왕실의 부패와 관리들의 행패, 그리고 양반들의 세도 때문에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서 민중들의 한(恨)이 생겨났다”⁶³⁾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恨)의 원인을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⁶⁴⁾ 첫째로는 내란과 외구와 민란으로 점철된 한국의 불안과 위축의 역사 때문이라 한다. 둘째로는 유교중심 사상이 빚은 계층의식 때문이다. 즉 유교가 인륜적 질서를 중시한 결과 양반, 중서, 상인, 노비의 계급적 차별이 생겼고 이로부터 관리등용 제한, 직업선택과 혼인, 거주지 자유가 제한되었고, 천민 이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로는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남성들의 여성들에 대한 횡포와 인종의 미덕을 강요한데서 생긴 여한(女恨)이다. 즉 남존여비

59) 최상진, 앞의 책, 8 : 그는 자신의 연구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의 연령층이 20대인 것을 감안하여 심리학적으로 한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60) 김열규, 「한맥원류」, 주우, 1981, 22.

61) 위의 책, 22쪽 참조.

62) 문순태, “한이란 무엇인가”, 「한의 이야기」, 보리, 1987, 151.

63) 위의 글, 151 참조.

64) 위의 글, 152-156 참조.

사상은 여성들을 남성들의 성의 도구요, 후손을 생산하는 도구로 여겼고, 유교의 윤리체계가 교리적 남존여비의 이데올로기로 변형 전승되어온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권 사대부들에 의한 가혹한 민중수탈로부터 한(恨)이 비롯되었다고 한다.

정신분석학자인 이호영도 앞의 김열규, 문순태 등과 같은 맥락에서 한(恨)의 원인을 설명한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특유한 권위주의적 사회구조와 가부장제 때문에 피압박층의 민중들에게 분노나 적개심 또는 공격성을 제어해야할 처지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양반과 상민의 계층, 남존여비와 대가족주의에서 빚어진 여성들의 갈등, 일본의 통치 하에서 겪었던 민족의 한(恨), 이데올로기의 분열, 남북분단이 빚어낸 비극, 빈부의 격차, 기타 헤아릴 수 없는 한국의 비극들이 한(恨)을 낳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⁶⁵⁾

한편 고은은 「이 땅에서 한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한(恨)을 인류사적, 민족사적 측면으로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恨)이란 크게 다섯 가지 차원에서 발생한다. 첫째로 선사·고대의 터전인 북방사회의 상실, 둘째로 고구려, 백제 패망으로부터, 셋째로 지배층의 억압과 착취, 넷째로 누차의 외세침략 및 근·현대사의 시련, 다섯째로 가진자의 착취 등으로부터 한(恨)이 비롯된다는 것이다.⁶⁶⁾ 그러면서 그는 “한(恨)은 정치로부터 소외된 한민족의 비정치적 비역사적인 삶의 계기로 인한 파생물”⁶⁷⁾임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끈기 있는 생존의지가 대륙과 그 밖의 외세의 압제와 침노에 맞서서 우리자신을 지켜내는 것이다. 또한 거기서 우리가 항상 품게 마련이었던 위기의식을 민족의 역사의식으로 삼아온 과정이, 그것을 뒤집어본 상태의 의존성과 함께 한(恨)의 발생에 기여”⁶⁸⁾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65) 이호영, “정신분석학자가 진단한 한국인의 성향”, 「계간사상」, 사회과학원, 1990, 116 참조.

66) 고은, “이 땅에서 한은 무엇인가”, 88-89 참조.

67) 위의 글, 55.

그는 한(恨)은 아주 좋은 세상에서는 생길 수 없고 어둠과 고통의 고립무원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지적한다.⁶⁹⁾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한(恨)의 발생원인은 크게 다음 몇 가지 차원으로 집약된다. 즉 김열규, 문순태, 이호영과는 달리 독특하게 제시하고 있는 고은의 선사와 고대의 터전인 북방사회의 상실과 고구려·백제 패망으로부터 비롯되는 한(恨)과 최상진의 심리학적 개념 분석을 통한 한(恨)을 제외하면 한(恨)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한(恨)이 발생한다는 점과, 둘째 지배계층의 민중들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로부터 한(恨)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 왜곡된 이데올로기로부터 발생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세 번째의 경우는 여성들에게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교에 대한 왜곡되어진 해석과 현실 적용으로 인한 윤리체계, 그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조선시대의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그 예이다.

이처럼 한(恨)은 화해와 용서에 대한 염원인 “희망의식의 부정적인 그리고 동시에 억압적인 표출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한(恨)의 해방은 발설하는 억압된 희망의식을 드러내는 작업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한(恨)의 감성적 또는 보복적 해체행위에 의하여 결과되는 사건들을 그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모순구조를 드러내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작업이 요구된다”.⁷⁰⁾

한(恨)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는 근본적인 모순구조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恨)을 해방시킬 근본적인 작업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는지 짐작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한(恨)을 가하는 이들이 진실을 인정하고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때,

68) 위의 글, 51.

69) 위의 글, 같은 참조.

70) 김진, “무속신앙과 한의 신학”, 「신학사상 67호」, 1989, 겨울, 1008.

민중들의 싶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수용적 한(恨)의 표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수용적 한(恨)의 표출이 바로 진정한 한(恨)을 해방시키는 자리(場)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망이 민중의 것일수록 그리고 그 희망 내용이 지배계층의 이익과 대립되는 것일수록 더욱더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⁷¹⁾ 그리고 그 희망은 앞으로도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지금까지 그들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희망이 앞으로도 영원히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중적인 절망의식은 그들을 체념하게 한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한(恨)의 체념구조가 실체화된다. 그리고 실제로 민중은 이와 같은 체념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한(恨)은 미래적인 현실 변혁적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한다.⁷²⁾ 그래서 한(恨)을 가한 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니 그 이상의 힘으로 희망을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악순환으로 한(恨)을 확장⁷³⁾”하는 결과만 낳게 된다. 물론 한(恨)의 해방에 대한 희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 한(恨)에 대한 희망(화해와 용서의 염원 - 수용적 恨)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恨)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 역사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 역사를 통해 한(恨)을 바라볼 때, 수용적 한(恨)을 모색함과 동시에 한(恨)의 해방을 위한 자리(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71) 위의 글, 1009.

72) 위의 글, 1011.

73) 위의 글, 1013 참조.

II. 제주 역사에서 드러나는 한(恨)

자연환경과 싸우면서 질긴 생명력을 보유하게 된 제주민중들은 한 반도의 한 행정 단위로 예속되면서부터 많은 착취와 억압에 시달려야 했고, 이로써 과중한 한(恨)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다. 힘이 없는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만 했던 제주민중들은 쌓여 가는 한(恨)을 그저 ‘힘없는 이들의 체념적 상태’로만 간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한(恨)은 역사를 살아가는 민중의 자의식 성장과 함께 서서히 표출되게 되고, 나아가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의지(에너지)로써 작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원동력인 한(恨)은 섬 밖에서 들어온 압제에 의하여 억압되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역사의 흐름 안에서 한(恨)이 체념적으로 표출되는 순간에도 현실변혁적 의지로써 한(恨)의 해방을 추구하기도 하고, 현실변혁적 의지로 표출되는 순간에도 체념적인 한(恨)에 머무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역사의 아픔으로 인해 진정한 한(恨)의 특성(화해와 용서, 희망, 수용)이 묻히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인 4·3을 바로 보기 위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논자는 ‘화해와 용서를 희망하는 한(恨)’을 간직한 제주 민중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I에서 살펴본 한(恨)의 의미를 제주 역사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우선, 체념적 한(恨)의 표출시기와 현실변혁적 의지로써 한(恨)의 표출 시기, 마지막으로 수용적 한(恨)의 표출시기로 역사를 나누었음을 밝힌다.

1. 체념적 한(恨)⁷⁴⁾

체념적 한(恨)이 표출되는 시기는, 한(恨)이 현실적 절망과 좌절, 희망의 상실로 비롯되어 현실변혁의 적극적 힘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절망으로 축소되거나, 해소될 수 없는 깊은 체념으로 머물고 마는 상태의 역사이다.

인위적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한(恨)보다 자연환경으로 인한 한(恨)은 제주 민중들의 생활에 가장 기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제주 역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1) 자연환경

제주도는 하나의 민족 집단도, 정치적 공동체도 아니었지만 지리적 역사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독립된 공동체로서 고유의 전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오랜 생활과정에서 형성된 많은 전설들이 제주의 생활양식과 특수한 풍토적·역사적 조건 아래 제주 특유의 성격을 띠게 된다. 특히 <설문대할망 전설>⁷⁵⁾에서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상황과 역사적 시련을 겪어야 했던 제주사람들의 불모적 사실을 형상화시켜주고 있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이 전설 속에 그들의 소망과 그 좌절의 아쉬움

74) 한승원, 조정래, 백낙청, 고은 등이 바라본 한(恨)에 대한 시각이 이 시기에 제주 민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恨)이다.

75) 옛날 제주도에는 <설문대할망>이라는 거인노파가 있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 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고 한다. 제주의 오름들은 할머니가 치맛자락에다 흙을 담아 나를 때에,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새어나와 된 것이다. 할머니는 키가 너무 커 놓으니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옷을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속옷 한 벌을 만드는 데에는 명주를 1백통(1통은 50필)이 든다. 제주백성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명주를 모았으나 99통밖에 아니 되었다. 속옷이 만들어지지 못하자 할머니는 다리를 놓다가 중단해 버렸다.

을 함축시키고 있다. 육지와 제주도의 연결은 제주도민들의 꿈이요 소망이었다. 그러나 이 꿈과 소망은 가난 때문에 좌절되고 만다. 결국 이 전설 안에는 제주도가 <섬>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 결정사실에 대한 한계 상황적 해명임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지리적 여건과 주어진 상황을 하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체념의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불모적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말이 ‘삼재(三災)’이다. ‘삼재(三災)’란 중앙에 높은 한라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으니 비가 오면 물 흐름이 빨라서 수재(水災)가 많고, 또 돌이 많고 토질이 얇으니 조금만 한발이 되어도 가뭄의 재앙(旱災)을 받았으며, 여름과 가을철에 태풍의 통로가 되므로 자주 바람의 재앙(風災)을 받았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옛 글에 산 높고 골 깊으니 물의 재앙이요(山高深谷水災), 돌 많고 땅이 부박하니 가뭄의 재앙이요(石多薄土旱災), 사방이 큰 바다 되니 바람의 재앙이라(四面大海風災) 하였다. 그리고 이 재해(災害)가 일년 중에 거듭되니 흉년이 될 수밖에 없고 백성들의 생활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였다.⁷⁶⁾

또한 제주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삼다의 섬’이란 말 역시 제주의 환경과 생활 모습을 잘 드러내준다. ‘삼다의 섬’이라고 함은 바람, 돌, 여자가 많다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가 컸고, 어로작업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다. 가혹하게 부여되는 공물 진상을 위해 배를 타고 어로작업을 하던 보작(어부)들의 폐죽음은 많은 여인들을 과부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많은 섬으로 보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제주도는 용암이 식은 현무암지대인 화산섬으로써 농작지는 대부분 돌밭이거나, 한라산 중허리 역새밭을 태워 만든 화전이었다. 돌이 많다는 것은 농사지을 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식량의 수급사정은 극히 불량했다. 때문에

76)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21.

그나마 살기 위해서는 바다의 밭을 갈아야 했다. 바다 밑에 미역을 심고, 소라와 전복을 키웠다. 이러한 해전경작은 잠수질이라는 제주여성 전담의 바다농업을 이루었다. 제주도에 여자가 많다는 것은 산으로 사냥이나 마소를 모는 일, 또는 무역으로 오랫동안 집을 비운 동안에도 비좁고 척박한 돌밭에 나가 검질(검)을 메고, 계속 시간을 내어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해야만 겨우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일하는 여성들이 외지사람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자연 환경은 환상적이고 이색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고 눈물나는 삶의 현실인 것이다.

이처럼 “거센 바람과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척박한 돌무더기 땅에서 화산회토를 일구고 거친 바다에 의존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생존을 영위해야만 하는 제주민중들에게는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모진 삶에 대한 한(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주민중들은 고통과 서러움의 한(恨)을 삶 저편에 묻어두고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서 한(恨)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면서 살아갔다. 그래서 제주민중에게 있어서 자연과의 힘겨운 투쟁에서보다 외부세력의 침략과 수탈에서 비롯된”⁷⁷⁾ 한(恨)이 더욱 크게 자리한다.

2) 고려사⁷⁸⁾

제주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한의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서 고려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고려사는 중세사의 역할을 하지만 제주도의 자치적인 원시 형태가 고려사까지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고려사에서 제주도는 한반도의 중세사적인 색채보다도 원초적인 색채가 농후하기 때문에 제주도와 한반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 있

77) 현문권, 「濟州의 恨에 대한 神學的 考察」, 광주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1997, 41.

78) 김종업의 “백제·신라 등 三國시대의 제주”와 “자치적 경향의 고려전기”, 고창석의 “삼별초가 제주에 미친 영향”(제주역사연구회, 「제주인의 삶」, 1989)을 정리하였다.

어서 고려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1) 제주와 한반도의 관계

1928년 일본인들에 의해 산지 축항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화석⁷⁹⁾을 통해 볼 때 제주는 낙랑 시대부터 낙랑의 상인과 교역이 이루어져 제주의 해산물을 가공한 물품 등을 교역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주와 한반도와의 관계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초적인 사회를 이루었던 제주도는 한반도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부터 제주와 한반도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역사적인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교류는 역시 백제와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삼성신화를 살펴보면,

“고후의 12세 손 탐왕이 백제와의 수호관계를 맺어 공물을 바쳐오다가 탐왕이 죽은 후에 공물이 중단되니 동성왕 20년 사천기를 거느리고 정벌에 나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탐라 국주는 사신을 보내 사죄하여 그 후부터 백제에 귀속되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기록을 보면 고구려 문주왕 13년경에 고구려는 후위에 사신 예실불을 보내 1년 1회씩 부여의 황금과 제주의 가옥(珂玉, 소위 진주)을 바쳤다고 한다. 이때 사신 예실불이 후위임금인 세종에게 황금은 부여에서 산출되는데 부여가 정복당해 못 가져 왔고 가옥은 섬라에서 나오는데 섬라는 백제에 병합되어 못 가져왔다는 얘기를 전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때 처음으로 탐라가 섬나로 나온다) 이 기록으로 볼 때 고구려는 후위에 제주의 가옥을 조공해 왔음을 알 수 있다.

79) 한사군 당시의 유물, 서기 8년 왕망이 전한을 물리치고 ‘신’이라는 나라를 세운 시기로 서기 25년까지 즉위한 동안에 만들어진 유물인 거울, 혁대, 돈 등의 유물.

백제와의 교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대략 400~500년 사이에 원초적인 제주사회가 탈바꿈해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삼성신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사회조직은 성씨족 사회만을 형성했을 뿐 강력한 군대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권력사회를 형성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조건 때문이다. 즉 대국과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사회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없었다. 이에 원초적인 생활형태를 지님으로써 군대 등의 강력한 체제 등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2) 고려시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2년 뒤인 태조 21년(938년) 탐라성주 ‘고자견’은 그의 아들 ‘말로’를 왕건에게 입조시킴으로써 제주와 고려 간에 최초의 정치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때 태조는 옛 신라의 예의를 답습하여 성주·왕자작위를 허가⁸⁰⁾해 준다. 하지만 태조부터 경종까지의 고려 초기에는 탐라를 채외민족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제주의 국주로서 성주 작위를 가진 이는 당연히 고려와 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해마다 방물을 바친다. 이때 방물은 제주의 특산물로⁸¹⁾ 일년 중에 궁중의 경조사와 왕의 교체기에 방출된다. 그 외에도 고려의 대표적인 연례행사인 연등회, 팔관회에 주로 많이 나갔다.

고려 조정이 탐라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의 일환으로 행한 무상계는 성주 혹은 왕자에게 주는 것으로 정 4품에 한정하였다. 한편 제주도를 감시,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당사⁸²⁾를 설치한다. 하지만 자치적

80) 신라 문무왕 때부터 조선 왕조 초 태종 2년(660~1402년) 까지 제주도에는 성주·왕자작위가 존속한다.

81) 주로 우황, 우피, 우각 및 선박, 비자, 소라, 해조, 구각, 명마 등.

82) 구당사는 변경 즉 압록강, 두만강, 제주도와 같은 섬 지방에 설치하여 성주, 왕자작위의 교체기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그 외의 중요사항을 보고하며 성주 왕자의 사망 시 부의금을 건의하는 것 등을 시행한다.

성격이 강한 탐라의 실제 행정적인 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숙종 5년(1105년) 탐라국은 탐라군으로 지방관제에 편입된다. 하지만 현령 또는 군수가 임명되어 파견된 기록은 없어 편제상 탐라군으로 두었을 뿐, 성주에게 일임 그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8대 의종 7년(1153년)에 와서 탐라군을 탐라현으로 개편한다. 의종 때부터 제주는 고려의 관리가 와서 제주행정을 관장한다. 이 사실은 완전한 제주 자치행정이 사라졌음을 나타낸다.

고려의 지배 후 제주는 특산물들을 공출해야 했으며 이러한 공출의 무로 제주민들의 어려움은 컸다. 더욱이 제주의 지배자, 토호 등에게도 수탈 당했다. 또한 고려 조정에서 온 관리들에게도 공출해야 하는 3종의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고려의 목민관이 제주에 오기 시작하면서 조정에서는 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종년대(1214~1259년)는 성년 15세의 남자에게는 대두 10말이 부과되었으며 부사 및 판관의 일을 돌보는 약 100여명의 아전배에게는 명마 한 필을 주어야 하는 부담이 주어졌다.

한편 제주에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방어별감을 설치하고 방어사라는 기구를 만들어 부사가 겸직하도록 하였는데 이전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기에 와서 제주는 서서히 전 고대 국가적 체제를 탈피하게 되지만, 제주 서민이 교육받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1274년까지의 제주도사는 중세라고 볼 수 없고 원초사회를 조금 벗어난 정도로 본다. 이 원초적인 사회에서 샤머니즘은 생활의 바탕이었다. 여기에 불교문화가 들어오면서 섬의 특유한 종교 형태로 나타난다. 즉, 본래적으로 발생한 원초적인 신앙과 백제로부터의 불교신앙이 융화되어 제주도의 생활습득과 알맞은 형태의 종교가 발생했다.

(3) 몽고의 침입⁸³⁾

고려는 고종 18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몽고의 침입을 받는다. 결국 고려가 강화도로까지 피난하면서 저항하였으나 고종 45년(1058년)에 항복하고 만다. 고려를 완전히 복속시킨 직후 몽고는 일본으로부터도 조공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낸다. 아울러 몽고에서는 이때부터 제주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원나라 세조는 남송,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제주도를 전략기지로 이용할 계획을 세워 고려를 복속시킨 후에 고려로 하여금 제주에 사신을 보내 제주사람들이 몽고까지 오도록 하였다⁸⁴⁾.

한편 원종 11년(1270년) 6월 강화도에서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삼별초 난이 일어난다. 제주에서 삼별초가 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고려시대 최해는 그의 저서 <졸고천백>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주를 지키는 방어군의 협조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긴 하지만, 지방민들이 삼별초와 결탁해 결국 관군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당시 지방민이 삼별초와 결탁한 것은 단순히 삼별초를 돕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때까지 고려에서 온 관리들의 수탈에 대한 일종의 항거로서, 지방민이 삼별초 군을 해방군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얘기되기도 한다.

원종 14년(1274년) 4월에 삼별초가 함락되자 제주는 원의 직할지가 되어 그 해 6월에 원은 제주에 ‘탐라국초토사⁸⁵⁾’를 설치, 초토사로

83) 고려시대 몽고의 침입을 따로 분리한 것은 제주도가 한반도에 예속된 후 외국에게 완전히 지배당했던 역사이기 때문이다.

84) 제주를 전략기지로 이용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문의 및 회유를 목적으로 사신을 보내도록 하였는데 이는 세조가 당시 제주도를 탐라 또는 탐라국이라 칭하여 고려와는 별개의 나라로 취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85) 원래 초토사는 원나라에서는 변경지방에만 설치하는 관청으로 주로 이민족을 회유 또는 토벌을 목적을 세워진다.

몽고인, 또 부사에는 중국인을 파견한다. 이 관청의 이름은 후에 자주 바뀌지만 실제 행정은 지방 사람들이 전부 맡았다. 그 후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원정이 2차례 있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그 당시 제주도를 전함 수리장으로 만들고 또 제주도를 방어하기 위해 몽고에서 군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 파견한다. 그러던 중 충렬왕 20년에 원나라 세조가 사망하고 성종이 즉위하자 탐라는 다시 고려에 복속 된다. 하지만 이때는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환부된 것이고 고려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내준 때는 충렬왕 31년이다.

그 당시 몽고가 설치했던 목장의 관리는 계속 몽고인이 하게 된다. 당시 몽고에서는 목장을 기록함에 있어 제주도 목장을 맨 처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중요시했다는 증거이다. 고려사에 보면 제주에서 기른 말들은 때때로 몽고에 공헌을 했다고 한다.

한편 몽고에서 제주의 목장을 관리하기 위해 보낸 이들을 목호라 불렀다. 목호들은 고려 후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세력이 강해진다. 그 이유는 몽고군이 제주에 주둔해 있고 1000여명 가량의 많은 죄수들이 유배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목호로 변하면서 그 세력이 강성해 갔던 것이다. 이들 세력은 공민왕 때부터 반란을 일으키며 고려에서 파견된 관리를 죽이고 지방민들을 회유시켜 그들의 세력을 확장했다. 지방민이 그들에게 회유된 것은 관료의 수탈이 그 원인이었다. 목호의 반란은 원이 멸망한 뒤 명나라 때에도 계속 일어난다. 명나라 당시 두 차례 발생한 난의 원인은 모두 명의 지나친 공마 요구와 ‘원나라 세조가 처음 방목을 시작하고 사육한 말을 원수인 명나라에 어떻게 공마를 하느냐’는 항거에 기인한 것이다.

제주 목호들의 저항에 대하여 공민왕 23년에 탐라 정벌을 단행한다. 당시 최영은 제주 정벌을 위해 2만5천6백여 명의 병사와 314척의 전함을 동원하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목호의 세력 또한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싸움의 결과는 목호의 주동자들의 죽음으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반란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러자 고려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지배계층인 탐라 성주를 회유⁸⁶⁾하고 우왕 13년 4월부터 탐라가 완전히 고려에 복속 된다. 이때부터 목장은 고려인 관리가 맡게 되었지만 관리상의 부실로 혼란한 과도기를 겪는다.

3) 조선 전·중기의 제주도⁸⁷⁾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제주도는 지방자치체적인 성격이 사라진다. 즉 중앙에서는 제주에 관원의 임기제를 두어 제주를 완전히 장악한다. 이 까닭으로 제주에는 지금까지의 성주, 왕자직이 사라진다. 세종 27년(1445년)에는 제주의 귀족계급이 소멸되어 평민화 된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비로소 조세법을 실시한다. 즉 전제 조세법을 시행하는데 세종원년(1419년)에 밭을 전부 조사하여 비로소 밭에 대한 세금을 과하게 된다.

이조에 들어오면서 중요한 것은 많은 고려 벼슬아치들이 제주에 들어와 유배생활을 했다는 것이다⁸⁸⁾. 이 유배자들은 제주에서 많은 교화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제주 사람들이 민란을 자주 일으키는 장두 정신의 기질은 절개를 지켰던 유배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1) 경제적 어려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함에 따라 제주도에는 여러 문제가 발

86) 고려 조정에서 초청, 고려의 벼슬을 주면서 회유.

87) 김봉옥, “朝鮮時代 전기의 제주도”, 45-49 ; “朝鮮朝 중앙집권제 시대의 濟州”, 50-55, (제주 역사연구회, 「제주인의 삶」, 1989)를 정리함.

88) 인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원나라의 귀족계급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려 벼슬아치인 귀족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곳 제주 사람과 혼합하여 오늘날의 제주 사람이 형성된다.

생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말⁸⁹⁾, 굴, 토산품⁹⁰⁾ 등에 대한 진상품의 과대진상요구 및 왜구의 침입으로 백성의 고통은 매우 심하였다.

말은 외부에서 사육하는 까닭에 폭풍우나 혹한이 닥칠 경우 폐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직접 사육을 담당하는 목자에게 우마를 사육하는 동안 상별규정을 마련하는 등 말을 관리하는데 많은 신경을 쓴다. 또한 겨울철 특히 장마 및 태풍 시에는 많은 말들이 폐사한다. 폐사된 말은 신고함과 동시에 그 수에 맞는 말가죽을 바치게 되는데 이때 말가죽에 약간의 손상이 있을 경우에도 고의로 죽인 것이라 하여 자연사임을 인정하지 않고 목자에게 변상을 시킨다. 변상할 수가 많은 경우에는 결국 가산 등을 팔아 변상해야 했으며, 심지어는 처자와 부모를 파는 목자도 있었다고 이형상 목사는 조정에 보고하고 있다. 더욱이 감당할 능력이 없는 목자는 자살하거나 도피 등으로 사라지게 되면 그 일가에까지 피해가 미쳤다고 한다.

말을 진상⁹¹⁾하는 어려움 또한 컸다. 바로 수송의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말을 실은 배는 해상에서의 폭풍 등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 인명 피해 등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왜구의 습격도 빈번하게 있었다. 더 큰 문제점은 목사·관관이 좋은 말은 앞을 다투어 징발함으로써 말 품종이 퇴화된 말만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굴은 당시 제주 유일의 특산품으로서 조정에서는 진귀한 품목⁹²⁾으로 여겼다. 당시 굴의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수령들은 민간의

89) 말에 대한 진상에 있어서 마정제도는 대단히 정비되었다. 처음에 몽고인들은 해안가 평야에 방목을 해왔는데 세종 때부터 고득종의 건의에 따라 한라산록으로 올라가 방목하게 되었다.

90) 토산물품은 전복, 오징어, 미역, 석결명(거북이 껍데기), 백납, 표고, 비자, 반하, 해동피, 안식향, 치자, 진피, 청피, 굴씨, 굴잎사귀, 지각, 향부자, 석곡, 고련목, 연파, 열매 등이다. 그 외에 노루고기를 건조시킨 포, 노루의 헛바닥, 꼬리, 녹피, 장피 또한 진상하였다. 제주도민이라면 대부분 이 같은 진상품에 고충을 겪었다.

91) 진상 수효는 매년 정기적으로 2백 필을 진상하며 특별 진상으로 3명절인 정월초하루, 동짓날, 임금의 생일날 등에는 양마 20필을 진상하게 된다. 즉 매년 2백60필이 고정적으로 진상 되고, 이외에 삼년마다 식년진상이라 하여 7백 필을 진상하게 된다.

92) 황감제라 하여 신하에게도 나누어주면서 동시에 반드시 신하들에게 글을 짓도록 하였다고 한다.

굴을 징발하였다. 가령 굴나무를 소유한 민가를 조사하여 착과 되면 그 수량을 조사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바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굴나무를 고의로 고사시켜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

이 외에 토산물을 진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생의 고통은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관원들의 착취 또한 서울로 수송하는 일 못지 않았다. 결국 중앙집권체제는 제주민들의 고통을 과하게 하는 악영향을 남겨놓았다. 왜냐하면 제주 목사는 임기가 30개월이었는데 탐관오리가 많았고 지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관리는 그리 많지 않았다.

(2) 왜구의 침입

제주에 왜구침입 기록을 보면 고려 충숙왕 3년(1316년)부터 명종 11년(1556년)간 240여 년 동안 30여 회 침입하였다. 하지만 왜구의 침입에 따른 방어시설이 구체적으로 정돈되기 시작한 시기는 세종 19년(1437년)이었다. 방어시설이 정비되었다 하더라도 동원된 병력이 5천 3백여 명으로 제주인으로는 충원이 불가능했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 제주성이 방어기능을 하기엔 너무 낮다고 하여 개축작업을 벌였다. 이 성 축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해 백성의 원한을 사기도 하였다. 또한 전라도에서 보충되던 병력도 중단된다. 그러므로 제주에서는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남자는 15살이 되면 병역에 임하여 70이 넘는 고령에도 병역을 면하지 못하였고 처녀까지도 군인에 동원되어 어려운 경제에 병력보충이라는 과중한 부담이 지워지게 된다⁹³⁾.

제주는 고립된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역모자들의 은신처로 안성맞춤이었다. 또한 역모자들이나 죄인들의 유배지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육지 사람들에 의한 반정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에 의해 제주도는 모욕과 역향의 누명을 쓰게 된다. 이러한 제주민들의 어려움을 가

93) 부족한 병역을 보충하기 위해 향교의 교생 1백여 명을 징발하였다. 이들은 병역을 면제하는 특권이 있었으나 군대에 동원되면서 결국 유생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된다.

장 극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선참후계(먼저 목을 베어 놓고 상황을 나중에 보고)하는 지역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갔던 제주민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한(恨)을 수용하는 입장이었던 듯 하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서 탐관오리들의 폭정에 대항하는 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자신들의 한(恨)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업보로 여기지 않고 변혁의 씨앗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4) 체념적 한(恨)의 역사

제주 선인(先人)들의 의식구조는 문종 원년(1451년)에 완성된 고려 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에 삼을나(三乙那)의 개벽신화에 수록된 신화(神話)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인(神人) 세 사람이 땅에서 솟아 나와 거친 곳에서 사냥을 하며 살았다. 하루는 동해변에 나무 상자가 떠오르므로 가서 이를 열어 보니, 함 속에는 석함(石函)이 있고 홍대(紅帶)를 한 자주빛 옷을 입은 사자(使者)가 있었다. 석함을 열어 보니 푸른 옷을 입은 세 공주(公主)와 송아지·망아지와 오곡의 씨앗이 있었다. 사자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이 세 공주를 낳으셨는데 서해(西海) 높은 산에 신자(神子) 세 사람이 내려와서 장차 개국하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 하시고, 신(臣)에게 세 공주를 모시고 가도록 하여 왔으니 당신들은 마땅히 배필로 삼아 대업을 이룩하소서’ 하고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삼을나는 나이 차례로 배필을 정하고, 살 땅을 활을 쏘아 정하니 일도리·이도리·삼도리라 하였다.”

이 신화는 탐라 선인들이 수렵(狩獵)시대에서 농목(農牧)시대로 정

작함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제주 선인들의 의식구조(意識構造)이다. 인류의 역사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언제나 권력다툼을 위한 싸움이 있다. 그러나 제주의 역사에는 그러한 사실이 문헌상으로는 전설상으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세 공주를 배필로 맞이하는 데에도 나이 차례로 하였고, 물 좋고 기름진 땅을 차지하는 데에도 활 쏘는 능력에 의하여 선택하였다. 이것은 곧 선인들의 평화의식(平和意識)·질서의식(秩序意識)·협동의식(協同意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⁹⁴⁾

그러나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역에서 주변의 다양한 문화와 문화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화가 유입되거나 주변 지역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체념적 한(恨)의 시기는 주변국과의 관계와 한반도와의 관계를 시작하여 발전하는 단계인 것이다. 하지만 힘이 없는 작은 섬,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수많은 한(恨)을 만들어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한(恨)

제주도와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제주민중의 체념적 한(恨)은 간단히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제주민중의 패배의식을 들 수 있다. 제주 역사 초기에는 백제와 수호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때 제주도는 백제에 공물을 바치다가 중단하였던 경험이 있었다. 이때 백제의 반응은 ‘동성왕 20년 사천기를 거느리고 정벌을 하는 것’이었다. 저항을 해보지 못한 제주도의 민족적 패배의식은 심각한 인간적 실존의 극한과 사회의 파괴 및 재산의 소실과 함께 가혹한 한(恨)으로 자리하게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

94) 김봉옥, 위의 책, 26-27.

라 그나마 유지되었던 제주의 귀족계급이 세종 27년에 소멸되어 평민화 되었다는 것 또한 제주민중에게 완전한 패배의식을 심어놓았다.

둘째로 지나친 공물 요구에 의한 제주 민중들의 고통이다. 지방 관제에 편입되면서 과도한 공물을 요구했던 한반도의 정권은 제주민중의 한(恨)을 더욱 무겁게 하였다. 오랜 세월 공물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민중의 한(恨)은 무력해진 제주도의 상황에서 더욱 가해진 것이기 때문에 희망의 감정이나 꿈을 꾸는 감정이 있을 수 없었다. 즉 자연 환경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했던 제주 민중들에게 있어서 외부의 절대적 힘에 대항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므로 단순히 마음에 쌓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셋째로 관리의 수탈이다. 제주에 목민관이 오면서 더욱 부담을 안게 된 제주민중은 간혹 선정관(善政官)이 어려운 사정을 돌봐줄 때는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리적 특성상 중앙 정부에서는 제주에 파견된 관리가 선정을 베풀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사실 많은 경래관(京來官)들이 제주민중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지 않고 탐욕과 수탈로 횡포를 심하게 부렸다. 그래서 제주 민중들은 고통에 견디다 못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민란을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모두 경래관의 비정(秕政)을 시정하도록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주모자는 후일을 경계하기 위하여 모두 예외 없이 참수당하게 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민란을 일으켜야 했던 장두(狀頭 : 제주에서는 민란을 주도했던 이들을 장두라 불렀다.)들은 선정관이 올 수 있기만을 희망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조정에서 크게 반성하여 선정(善政)할 목민관(牧民官)을 골라 파견하고 여러 가지 민폐(民弊)를 시정하는데 노력했을 때, 제주 민중들은 지나간 과오를 모두 용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측면에서 제주민중들의 한(恨)은 현실변혁적 측면보다 체념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였다. 민란은 단순히 현실

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을 뿐 희망의 한(恨)을 노래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부담 때문이었고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 힘의 논리 때문이었다. 민란을 주도한 장두들⁹⁵⁾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알리는데 그쳤고, 조정 역시 민란을 일으키게 된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만을 했을 뿐이다. 제주민중들은 자신들의 한(恨)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었고 생활고(生活苦)에 대한 해소에 만족하였다.

(2)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한(恨)

제주민중의 한(恨)을 체념적인 비애의 응어리요, 오욕의 역사의 산물로 만든 가장 큰 영향은 몽고와의 관계에서 시작됨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일회적이 아닌 끊임없는 침략을 고려한다면 왜구의 침입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화해와 용서를 전혀 희망할 수 없었던 제주민중들의 한(恨)은 현실변혁적 한(恨)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는 있지만, 한반도의 수탈에 더해진 주변국과의 힘의 논리에 결국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첫째로 몽고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몽고의 고려 침공에서 제주도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초기에는 탐라국이라 칭하면서 고려와는 별개의 나라로 인정하였던 몽고는 삼별초의 저항을 빌미로 제주를 원의 직할지로 귀속시킨다. 이때부터 제주에는 몽고인, 중국인이 들어오게 되어 또 하나의 고통을 제주민중들에게 주게 되었다. 특히, 일본 정벌을 위한 전함 수리장 설치 및 군

95) 옛날 생활의 여건이 좋지 못한 탐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멀게는 백제가 말할 때 신라에 불복한 귀족들이 들어와서 백제의 부흥을 꾀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었다. 또 고려 말에 이성계에게 불복한 사람들도 절해고도(絶海孤島)라 하여 이곳으로 유배되었다. 그들은 정의를 내세우고 의리를 소중히 여긴 까닭에 절해고도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 후손들도 그 훈계를 이어받아 바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경래관의 탐욕하고 무도한 횡포를 그대로 감수할 까닭이 없었다. 그리하여 일어난 것이 제주 민란의 전모이다. 그들은 죽기를 무릅쓰고 생존권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 김봉옥, 위의 책, 42.

대의 파견은 많은 수탈에 제주민중들의 비애의 응어리인 한(恨)을 뼈속 깊이 박히게 했다. 이는 “삼별초가 평정된 후에 탐라인은 몽고인에게 많은 괴로움과 시달림을 받게 되자, 비로소 그들의 호국정신을 고무하며 그들을 영웅으로 받들고 신격화(神格化)하여, 많은 전설과 민담이 만들어졌다”⁹⁶⁾는 데서 제주민중들의 한(恨)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목장의 관리를 위해 제주도에 들어온 몽고인들(목호)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에서 파견된 관리를 죽이고 관리의 수탈에 못 견뎌 하던 제주민중들을 자신들의 세력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관리들의 수탈을 이겨내기 위해 몽고인들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제주민중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원의 멸망 후 지나친 공마 요구에 항거했던 목호의 난은 제주민중의 난(亂)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일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왜구는 끊임없이 제주에 침입하여 제주민중들의 생활을 위협하였다. 원(元)의 두 차례 침공 계획의 실패로 방어책으로 병선(兵船)을 준비하고 군사를 조련했던 일본이 역으로 침공한 것이다.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제주민중들의 의지에 상관없이 죽음에 이르러야 했었다는 사실이다. 제주민중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현실을 이겨낼 만한 힘과 의식의 성장이 없었다. 그래서 제주민중의 한(恨)은 강한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저항할 수 없는 체념적 한(恨)으로 머물게 되었다.

2. 현실변혁적 한(恨)

전 장에서 살펴본 체념적 한(恨)의 역사에서 우리는 간혹 현실변혁

96) 김봉옥, 위의 책, 60.

적 의지로 승화하고자 하는 제주민중의 염원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조그마한 움직임이 민중의 의식 성장과 함께 더욱 조직적이면서도 제주민중이 주체가 되는 항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렇다면 한(恨) 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완상이나 김성기는 “한을 푸는 역할로써의 굿판은 가해자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피해자의 아픔을 풀어주는 자리이다. 좌절이나 억압된 욕구가 맺히어 응어리진 한(恨)은 신명을 통해 풀릴 수 있다. 곧 심리적인 해방감이나 생리적인 발산에 더하여 사회적 자유마저 신명을 통해 느낄 정도로 풀림이 확대되는 현장에서 억압된 욕구로서의 한의 응어리는 상당히 풀리게 된다.”⁹⁷⁾고 한다. 하지만 과연 현실에서 한(恨)이 해소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된다. 나아가 “민중의 해학적 놀이인 탈춤”⁹⁸⁾ 역시 “맺혔던 한(恨)을 한 차원 드높여진 수준에서 풀리는 동시에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극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며, 민중이 억압적인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유토피아에 참여하겠다는 민중의 정치적 갈망”⁹⁹⁾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을 풀기 위한 민중의 노력은 단순히 한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현실에서의 한은 역사적 흐름과 맞물려 있으면서 동시에 한을 가하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한이 맺히게 된 원인에 대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이 맺혀 있는 민중의 차원에서만 한을 해소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분명 한이 맺혀 있는 민중은 굿판이나 탈춤 등을 통해 한을 해소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의 본질적인 부분은 결코 해소되지 아니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 쌓이기만 했다. 그러하기에 민중의 의식의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한을 현실변혁적 의지로써 ‘저항’

97) 한완상·김성기, “한(恨)에 대한 민중사회학적 시론”, 78-79 참조.

98) 탈춤의 초월적 경험은 恨에 대한 해방적 의미를 갖는다: 한완상·김성기, 위의 책, 82-96 참조.

99) 한완상·김성기, 위의 책, 94.

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역시 “한이 구체적으로 역사적 혁명운동에 연결되는가를 밝히는 작업의 필요성”¹⁰⁰⁾을 언급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을 해소하고자 했던 민중의 적극적 표현인 민란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1) 조선 후기 민란

조선 왕조에 와서 인조 7년부터 순조 말까지 200여 년 동안 제주도민은 외부지역으로의 이주하려는 자유마저 박탈당해야 했다. 이는 흉년과 부역, 공물가중에 더하여 왜구의 출몰로 인하여 기아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죽어갔으며, 이러한 악제에 더하여 관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시달렸던 도민들이 섬을 빠져나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하여 제주도의 민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제주도의 민란과 소요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조선중기에 피해졌던 반란 음모 사건이며, 둘째는 조선 후기에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들의 학정에 항거하여 잇달아 일어났던 민란이다. 세 번째는 천주교인과 제주 도민들과의 마찰과 갈등으로 일어났던 이른바 제주도 교난이다.¹⁰¹⁾

한반도의 역사에서 “조선 후기부터 구한말에 이르는 시기는 봉건사회의 해체기에 해당된다. 중세의 봉건적 사회체제가 조선 후기이래 농업 생산력의 발전, 상공업의 성장, 농민층 분해를 바탕으로 점차 무너지면서 새로운 사회관계로서 자본적 관계가 발생·발전하였다. 이는 새로운 사회사상을 형성시키고 중세의 신분제를 붕괴시키며 계급 구조를 재편성하는 결과를 낳았다.”¹⁰²⁾ 이러한 사회 변동의 근원적인 힘은 하

100) 같은 책, 99.

101) 뿌리깊은 나무, 「제주도: 한국의 발전」, 서울:브리테니커, 1983, 70.

102) 조성윤, “제주도 근대사회운동의 재조명” 「한라산 29호」, 제주대학교교외지편집부, 216.

급층인 민중들의 현실변혁적 의지로써 한(恨)을 강하게 표출하는 데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욕구가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켰고, 신분 상승운동을 전개하며 지배층의 수탈에 맞서는 힘으로 작용하여 민란이 폭발했을 것이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조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타지방과는 매우 다른 특유의 정치, 경제, 문화 구조를 형성해 왔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초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그 땅들의 경제적 활동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지가 밭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그 전답의 많은 양이 국가의 토지였고 민중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는 적었다. 따라서 “조선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인 지주 전호제가 별로 발달하지 못하여 대지주는 없었고 소수의 중소 지주를 제외하면 농민의 대부분은 자작농 겸 둔전 소작인으로 존재하면서 작물을 경작하는 한편, 목축업, 수산업, 특수 작물 재배, 그리고 약간의 수공업 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 나갔다.”¹⁰³⁾ 이는 “조선 후기 봉건사회의 전반적인 붕괴과정 즉, 상공업 발달과 계급의 분화되면서 신분제가 해체되던 타지방의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제주도 나름대로 독특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제주도는 중앙정부에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곡물 상납을 제외하고는 행정과 재정 운영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곧 지방관이 향리층 및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자의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제주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田稅) 보다는 굴, 전복 등 각종특산물의 공납과 말의 사육을 훨씬 중요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목사 및 지방관들은 토지 소유보다는 소와 말을 기르는 축산업과 곡물 상납 과정에서의 중간착취 및 각종 잡세의 징수 과정이 토호와 향리층의 부의 축적 통로가 되고 있었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국유지를 화전(火田)으로 개간하여 무단 경작하는 경향이 늘어났는데 관리들은 이를 금지하기보다는

103) 조성윤, 위의 책, 216.

오히려 묵인하면서 세금 걷어들이기에 바빴다.”¹⁰⁴⁾ 이와 같이 제주도 사회경제의 기본구조는 이런 양상을 띠었으며, 조선후기의 세도정치로 인해 중앙정부의 국가기강이 소홀하였던 점과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발맞추어 민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모순의 심화와 민중 의식의 성장에 힘입어 민중운동이 활발해 지게 된다. 당시 제주도의 민란 발생은 물론, 제주도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상황과 지방관리 및 토호세력의 착취가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이었지만 다른 지방에서의 민란의 발발 또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¹⁰⁵⁾ 그러므로 제주 민란에 대하여 살펴볼 때, 과연 제주민중의 한(恨)이 왜 폭력적인 현실변혁적 의지로 표출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양제해 항쟁

19세기 들어 가장 먼저 발생한 민란은 1813년 양제해 난이다. 이 난은 당시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1812년에 발생한 평안도 농민전쟁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이 항쟁은 이전에 간헐적으로 군·현 단위로 제각기 발생하던 민란의 수준을 한 차원 뛰어넘어 몰락 지식인, 상인, 향촌유력자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직접 정권에 도전한 것이었다.¹⁰⁶⁾ 양제해 난 역시 봉기를 일으켰던 세력이 토착지배세력 중에서 비교적 소외된 자들이었다. 풍헌¹⁰⁷⁾을 지낸 양제해가 중심이 되어 군기를 확보하고 군대를 비밀리에 모집하고 제주성을 공격하여 목사, 관관, 현감 등 지방관을 모두 제거하고 타지방과의 선박왕래를 금지시켜 자신들이 도내 권력을 장악하여 독자적인 정치를 하려 하였다. 비록

104) 조성윤, 앞의 책, 217.

105) 조성윤, 위의 책, 218.

106) 김봉현, 「제주도 역사지」, 대구, 교문사, 1960, 261.

107) 풍헌(風憲) - 조선시대 면(面)이나 리(里)의 일을 맡아보던 향소의 한 소임(所任)

거사를 계획하고 봉기를 준비하던 중 탄로가 나서 실패하고 말았지만, 이 사건은 조세수취 구조에 대한 농민들의 강한 불만을 등에 업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던 토호 세력이 조선 정부를 거부하고 반기를 들음으로써 분리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 준다.

양제해의 봉기 원인은 삼정의 문란과 부패한 지방관리의 폐정과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지방 차별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하나 그것보다는 더 깊은 원인이 숨어있다. 즉, 운동주체가 일반민중이 아니라 토착 지배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과거를 통한 중앙관직 진출이 어려운 제주도 현실에서 지방관직, 향임직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소수 집단에 의한 관직 독점과 이에 반발하는 소외된 세력의 갈등이 조세수취 과정의 폐단과 연결되면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제해 및 그 밖의 주동자들은 지방관 타살을 통한 별국(別國)건설이었고 이때 별국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국가로서 권력층은 그들이 도맡아서 하는 양상이었다.¹⁰⁸⁾ 이는 사회경제적 모순을 완전히 제거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 아니라 권력층만이 양제해 집단으로 교체되는 단순한 권력구조의 재편성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제주도 특유의 분리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민중들의 이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토착지배층이 자신들의 권력 장악만을 노린 거변 계획이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2) 강제검의 항쟁

1862년 일어난 강제검의 난은 ‘철종조 제주민란’이라고도 하는데 이 난은 철종 13년(1862년)부터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농민 항쟁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 당시농민항쟁들은 파탄상태로 치닫고 있던 중세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 70여 개 지역에서 농

108) 김봉현, 앞의 책, 268 참고.

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전개한 반봉건적 운동이었다.

강제검의 난은 1882년 9월, 10월, 11월 3차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어간 농민 중심의 반봉건적 운동이었다. 강제검이 중심이 되어 통문(通文)을 돌리고 주로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일어났으며 이때 수만 명의 농민들은 제주성을 함락시켜 목사를 성토하여 내쫓고, 평소에 작폐가 심했던 아전 세 사람을 몰매로 쳐죽이고 집복문서(執卜文書)를 불태워 버렸다.¹⁰⁹⁾ 하지만 강제검의 난은 처음부터 폭력적인 성격을 띤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방법인 등소(等訴)¹¹⁰⁾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려 하였지만, 그러한 방법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1차 항쟁은 대정 지방의 화전민이 선봉에 서서 항쟁을 이끌었으며 대부분 지역의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1차 항쟁은 소규모의 파괴활동과 등소를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목사가 화전세(火田稅)를 감면하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히 끝났다. 반면에 2차 항쟁은 향리들 가운데 착취가 심한 5명의 처단을 주장하면서 훨씬 강력한 형태로 일어나게 된다. 이에 목사는 향리 5명의 처단과 각종 조세의 감면을 약속하나 항쟁이 가라앉을 즈음에 그 약속을 어기고 항쟁 주동인물을 조사·구금하는 탄압책을 썼다. 이에 3차 항쟁이 발발하여 목사를 내쫓고 향리 5명을 처단하고 제주성을 장악하였다가 해산하게 된다.¹¹¹⁾

강제검의 난의 특징은 제주도 전역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였는데, 특히 통문을 돌려 사람들을 모으고 돌을 돌려 맹세하는 방법을 써서 항쟁의 중심세력을 형성한 것은 이전의 제주도 농민항쟁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조직적인 운동의 전개방식이었다. 난의 발발 원인은 화장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수취 구조의 개혁이었고, 과도한 조세

109) 이정훈, “제주 임오 성교란에 관한 연구”, 「제주도 연구회」, 제5집, 1988, 261 참고.

110) 등소 - 여러 사람이 연명(連名)으로 관아에 무엇을 호소함.

111) 김태능, 「제주도 史論」, 서울: 세계문화사, 1982.

징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중간착취한 감관, 색리 등 향리와 향임층이 주요 타도대상이었다. 강제검의 난이 종결된 이후 중앙정부는 조세구조 등을 부분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일시적인 미봉책을 썼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각종 착취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이러한 대규모 항쟁을 통하여 점차 자아의식의 성장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3) 김지의 항쟁

1890년에 일어난 김지의 난은 앞에서 언급한 양제의 난이나 강제검의 난과 특별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지방관이 향리와 결탁하여 농민의 비참한 실정을 돌아보지 않고 착취에만 혈안이 되어 민중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이에 김지가 주동을 하여 민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사실 1876년 개항이후 민란의 성격이 조금은 바뀌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 일본을 앞세운 서구 자본주의 세력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선사회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일부로 만들고 식민지로 종속시키려고 압력을 가해왔다. 따라서 조선 사회는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사회 내적 모순, 즉 봉건적 모순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외세의 압력에 맞서 싸워야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조선정부와 지배층은 외세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회변혁의 가능성은 민중세력에게만 주어져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봉건적 착취는 오히려 심해졌고 여기에 외세의 각종 수탈이 가세함으로써 민중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고 저항의식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역시 어떤 경우든 운동의 주체는 민중세력이었다 할 수 있다.

(4) 강유석과 송계홍의 항쟁

1896년 일어난 이 난은 ‘신제개혁 반대 운동’이라고도 한다. 이 난은 유생들이 선두에 서고 이어서 농민들이 합세하면서 확대되었던 것으로 갑오경장의 신체제에 반발한 사건이었다. 1894년 갑오년에 동학난이 일어났고,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자 우리나라에서는 김홍집의 친일 내각이 성립되어 같은 해 12월 흥범 14조의 서정개혁령이 공포되었다. 이는 조선 봉건사회의 조직과 제도가 근대국가 체제로 바뀌려는 것이었다.¹¹²⁾

갑오경장으로 나라의 제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제주에도 목사대신 관찰사를 두게 되고 경무청을 신설하여 경무관과 순검을 두게 되는 등 새로운 제도에 민중들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1896년 3월 유생 이연보가 단발령의 부당함을 대중 앞에서 말하다가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강유석, 송계홍을 비롯한 유생들이 이연보의 석방을 요구하러 경무청으로 갔으나 순검으로부터 저지 당하자 평소 각종 제도개혁과 단발령이 일본제국주의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믿고 있던 유생과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선 것이었다.¹¹³⁾

(5) 방성철의 항쟁

방성철의 난은 1896년에 도입한 이병휘 목사와 이속들의 수탈로 민중의 원성이 높았을 때, 토지세의 부당함과 여러 가지 악폐를 들어 1898년에 방성철이 선동하여 화전민과 가난한 농민들이 같이 들고일어났던 난이다.¹¹⁴⁾ 이 난의 특징은 그 운동과정에서 지도부를 형성하

112)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 경신 인쇄소, 1987, 184.

113) 제주도 문화 공보담당관실, 「제주도지」, 1982, 341 참고.

114) 홍순만 “천주교란”, 「제주도지 上권」, 1983, 73-74.

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집단이 다른 지방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사람들로 구성된 남학당(南學黨)이라는 종교집단이라는 점이다. 방성철을 지도자로 하는 이들 남학당은 본래 전라도 일대에 퍼져있던 남학이라는 종교적 신도들로서 갑오농민 전쟁당시인 1894년에 제주도로 집단 이주하여 다른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정현 광청리 일대 화전지대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각종 봉건적 수탈을 당하고 있었다.

이런 각종 수탈에 결국 민중의 분노가 터지고 만 것이다. 박용후의 저서인 ‘제주도지’에선 방성철의 난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성철은 전남 동북부(同福部) 사람인데 본도에 들어와 살면서 방두(房杜)의 비결을 가지고 반역의 뜻을 품어 민심을 선동하여 오다가 감세(減稅)를 고치겠다고 하여 민중을 규합하고 자기 심복 부하 중에서 힘이 센 사람 수십 명을 택하여 어남군이라 칭하고 제주성에 침입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목사를 추출하고 인부(印符)를 탈취하였다. 성철은 제주도를 일본에 부속시키려고 일본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채중앙(中洋)에 달(達)하기 전에 강풍이 일어 어쩔 수 없이 되돌아오게 되었다. 이때 전현감, 흥재진, 송두옥 등이 창의소를 설치하고 성중의 장정을 동원하여 성철의 난의 주동자를 잡아 죽였다. 목사 이병휘는 성을 지키지 못한 탓으로 파면되었고, 3월에 목사 박용원이 찰리사를 겸하고 와서 무마하였다.¹¹⁵⁾

방성철의 난은 개항이후 일본어민들의 침투와 관리들의 중간 수탈 심화 등 봉건적 모순과 외세 침투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며 불만을 품고 있던 민중들은 방성철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운동의 목표는 화전세와 호포의 과다징수, 그리고 환곡을 관에서 멋대로 조종하는 폐단을 시정하는 것이었다.

115) 박용후, 「제주도지」, 서울, 백영사, 1976, 69.

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토호세력까지 무너뜨린 지도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난, 독립권 왕조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발전시킨다. 내용은 물론 근대적인 국가체제는 아니고, 남학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는 왕조를 건설이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농민들의 바램, 곧 사회경제적 모순이 해결되어 각종 조세의 납부와 부역이 없는 이상낙원을 건설하고 싶다는 희망을 종교적인 사상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다.¹¹⁶⁾ 그러나, 방성철의 난은 비조직적이고 단기적인 형태로만 발생하던 민중의 힘을 하나로 엮어 조직적인 운동의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1862년 제주민중의 항쟁 이래로 제주도 민중들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 통치력의 자의적 수탈로 표현되는 지극히 열악한 봉건 경제구조의 누적된 구조적 모순에 저항하는 항쟁을 전개하였고, 이런 항쟁과정 안에서 점차 민중들의 사회의식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는 일정하게 운동의 경험이 축적되어 점차 조직적인 항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6) 평가

우리는 앞서 살펴본 민란들에서 제주민중들이 통치세력에 의한 수탈에 얼마나 고통을 당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제주민중들에게 있어서 한(恨)맺히게 했던 것은 조세수취 구조로 인한 가난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리들의 착폐와 외세의 수탈도 한몫을 하고 있다. 외세의 수탈에 있어서 조선정부와 지배 계층의 굴종적 태도는 제주민중에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恨)을 해방시키는데 주체적 의식을 더욱 강

116) 조성윤, 앞의 책, 69.

하게 해준다.

민란을 통해서 제주 민중에게 “한이 맺히게 하는 원인을 다시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만성적인 가난이 그 하나인데, 이것은 민중의 한(恨)생성의 구조적 요인이다. 여기에서 민중의 가난은 낙후된 기술이나 농업생산성과 같은 기술적인 요인에서 연유된 것이라기보다는 지배세력의 수탈, 곧 전통적 및 식민지 관료제의 가혹한 착취로부터 결과된 것이라 하겠다.”¹¹⁷⁾ 그래서 민중은 가난의 원인을 극복하고자 난(亂)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 중요한 한(恨)의 구조적 요인은 “특정 일부 세력에 의한 권력의 무제한적인 남용이었다. 첫째 요인이 절대빈곤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한다면, 둘째 요인은 다분히 상대적인 빈곤으로서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¹¹⁸⁾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동시에 이루어져 제주민중들에게 커다란 좌절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민중들은 결코 체념적으로 머물러 버리지 않고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의지로써 한(恨)을 표출하게 된다.

다음에 살펴볼 ‘신축년 민란’을 통해 우리는 만성적 가난으로 맺혀진 한(恨)에 더하여 특정 일부 세력에 의한 권력의 무제한적 남용에 의한 한(恨)의 발생과 그 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민중의 표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신축년 민란

신축년 민란을 살펴보기에 앞서 당시 세계의 흐름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역사는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존재이므로 우연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사의 많은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하나의

117) 한완상·김성기, 위의 책, 68-69.

118) 한완상·김성기, 위의 책, 68-69 참조.

사건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단지 그 사건만을 바라보아서는 그 사건의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축년 민란도 그 시대의 흐름 안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1) 국·내외 정세

당시 세계의 흐름은 서구 열강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패권 다툼으로 인해 이제 그들은 식민지 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무력에 의한 확장이나, 통상을 빌미로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군대와 사절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그 대상에서 동아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16세기 이후 서양 제국에 의한 지리적 발견과 함께 가톨릭의 세계포교사업은 본국 정부의 절대적 지원 속에 본격화되었다. 이는 정복과 개종이라는 목적아래 중상주의적 절대주의 국가와 가톨릭과의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구축되면서 이루어졌다. 당시 이런 선교를 담당한 나라는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스페인-프랑스-포르투갈이었다. 특히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이성주의·계몽주의의 등장으로 교회영향력이 쇠퇴하면서도 절대국가 안에서 해외 포교 사업은 국가에 의해 더욱 권장되고, 적극적 지원”¹¹⁹⁾을 받게 되었다.

동아시아에 대한 전교사업은 16세기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전교 사업은 보유론적 적응주의(補儒論的 適應主義)를 채택한 예수회가 주로 담당하였고, 그 지역의 선교보호권(adronados)은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여 동양 무역을 거의 독점하고 있던 포르투갈에 있었다.

예수회는 포교지의 전통·종교·문화 등 기존의 가치 체계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전교 사업을 추진하여 큰 갈등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¹²⁰⁾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 예수회의 보유론적 적응주의가 비판을

119) 강장일, 「1901년 제주도민 항쟁에 관하여」, 제주도사연구소, 1991, 41-43.

120) A:프란쥬, 「교회사」, 왜관: 분도출판사, 1990, 366-372.

받고, 또한 본국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차단되는 속에서 예수회는 해산되었고, 이에 동아시아의 전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즉 예수회의 역할을 파리 외방 전교회가 담당하게 되고, 중상주의 체제에서 산업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강력해진 프랑스가 그곳의 선교보호권을 넘겨받는다. 이와 함께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계몽주의에 이어 낭만주의가 대두함에 따라 교회가 국가에 예속되면서 국가교회주의가 강화되었다. 19세기는 포교의 전성기로서 교회는 국가의 군사적, 경제적 힘에, 국가는 식민지시장의 확보를 위해서 선교사들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당시 빈발했던 교회측과 정착민의 갈등과 대립구조의 양상 안에서 침략의 발판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런 19세기의 절대주의 국가의 힘의 원리는 당시 중화사상(中華思想)을 지니고 있던 중국에 있어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1842년 난징조약으로 마무리된 아편전쟁은 청국(淸國) 정부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자만심을 무력으로 꺾인 더할 수 없이 굴욕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반면 청국의 개국과 더불어 유럽과의 교섭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고, 그 영향은 나아가서 조선과 일본에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편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던 1841년 프랑스는 중국에 군함 2척을 파견하고 뤬슈계나마 동양에서, 특히 중국에서 이권을 찾아보려고 조선원정을 계획하게 되었다.¹²¹⁾ 이를 위해 세실 함장은 마카오에 닻을 내리고 파리 외방전교회 경리부를 찾아 그곳에 유학 중이던 조선인 신학생을 통역으로 동행시켜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경리부에선 그의 청을 즉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대건 신학생은 군함 에리곤호에 올라 세실과 동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난징조약으로 아편전쟁이 영국에 유리하게 되자 중국에 계속 주둔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조선 원정은 중단되고 말았다.¹²²⁾ 그러나 세실은 1846년 조선 원정을 다시 결심하였고, 그것은 무엇보다 1839년의 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 3명을 처형한 책임을

121) 최석우, 「한국 교회사의 연구Ⅱ」,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324-325.

122) 이원순, 「한국천주교회사 下」, 탐구당, 1970, 31-32.

문기 위해서였고 이를 통해 중국에서처럼 조선 정부로부터 문호의 개방과 종교의 자유를 함께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의해 번번이 실패하였고 오히려 조선에 악영향을 끼쳐 조선에 남아 있는 선교사와 천주교인을 살상하는 병인박해가 일어나고 말았다. 뒤늦게나마 프랑스 정부는 군사적 보복만으로 조선을 개국시킬 수 없음을 알고 앞으로의 조선 원정은 종전과 같이 선교사 학살에 대한 보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통상(通商)이란 보다 보편적인 조건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¹²³⁾ 그래서 프랑스정부는 점차 통상의 요구란 보편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 조선은 비로소 1882년부터 서구열강에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을 선두로 하여 영국·독일·이태리·러시아 등과 통상수호조약을 체결하는데, 프랑스와는 제일 늦은 1886년에 가서야 조약을 맺게 된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다른 세 열강은 오직 통상만을 목적으로 협상하였으나, 프랑스는 통상과 더불어 선교의 자유를 집요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 이하 한불조약)이후 선교사의 조건은 현저히 향상되었으나, 천주교인의 조건은 조금도 향상되지 않았다. 천주교는 여전히 금지된 종교로 인식되었고, 정착지와 그 밖의 활동 범위도 제한되어 있었으며, 건물도 세울 수 없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이미 각 지방에 정착하여 본당을 건설하고 본당에 필요한 건물을 세워 가고 있었기에 여전히 정부와 천주교의 갈등, 천주교인과 민중의 대립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갈등과 대립은 지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런 사건들은 조선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의 외교문제, 즉 소위 ‘교안’(敎案)으로 확대되었다.¹²⁴⁾

교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 후기 각 지역에서 발생한 교안은

123) 같은 책, 35-38.

124) 효성 가톨릭대 교수 김길수씨의 말을 빌리면 “교안은 교회측과 민인들(민중)과의 관계에서 생긴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할 때 사용 한다”. 결국 이런 양상에서 교인은 문제 발생 시 선교사에게 의지하고 선교사는 프랑스 정부에 이를 통보한다. 민인은 문제 발생 시 지방관에게 호소하고 지방관은 정부에 알린다. 결국 교안은 외교 문제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교회측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띠지만 그 과정 안에서 교회측과 대립하였던 계층이나 세력은 다양하였다. 그리고 그 교안들의 발생원인이나 과정과 결과도 매우 다양하며 일괄적인 성격 규명은 매우 힘이 든다.

하지만 조선 후기는 조선 정부와 교회의 대립, 그에 따른 조선과 서양의 대립·갈등, 교인과 민인들의 대립, 그리고 정부 지방관과 민인들과의 대립 구조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어 있었고, 이런 관계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조치나 대안은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는 조선 정부의 무능력함과 그에 따른 서구 열강의 강력한 견제, 그리고 불안정한 사회 가치관 등의 변화에 따른 민중들의 원성과 울분이 이런 조선 후기의 국내 정세에 반영되었다.

(2) 조선 후기 천주교 성격

1866년 병인박해가 있는 지 몇 년 동안 조선의 천주교회는 물리적인 국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지하로 숨어들어 감으로 교세(敎勢)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천주교 포교를 담당하던 프랑스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은 조선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시기에 천주교인들은 정부의 탄압을 피하여 신앙을 포기하거나, 산간벽지나 도서 지방으로 피신하여 들어갔다. 1876년 개항 직후인 1880년대 들어와서 정부의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그러나 교회와 국가 간의 상반된 입장은 정부가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정부는 열강 제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도 신앙의 문제를 국가의 권리로 간주하였고, 교회는 정교(政敎) 분리를 주장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간주하였다.¹²⁵⁾ 그래서 이때까지 교회의 선교활동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1886

125) 노길명, “개화기의 한국 가톨릭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가톨릭과 조선후기 사회활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8 요약.

년 한불조약을 계기로 천주교를 포함한 크리스티교의 전교활동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조약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후 조선 천주교회에 포교를 하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곳은 프랑스의 파리 외방 전교회였다. 이들의 전교 방식이나 사상은 조선후기 천주교의 성격 안에 드러나게 된다.

우선 파리 외방 전교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중세적 봉건 질서가 해체되면서 프랑스는 강력한 중상주의적 절대국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에 교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프랑스 성직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17·18세기의 갈리아니즘과 안세니즘이 그것이었다.¹²⁶⁾ 갈리아니즘은 국가교회주의로서,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프랑스 교회'를 위해 교황의 수위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었고,¹²⁷⁾ 동시에 교회가 국가에의 예속이 더욱 심화됨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향은 절대주의가 산업 자본주의로, 그리고 제국주의단계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어 갔다.¹²⁸⁾ 파리 외방 전교회가 교황청의 포교성 소속이면서도 프랑스가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전교사업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이루어져, 곧 국가 간의 문제로의 발발 가능성이 스며들게 되었다. 안세니즘은 18세기 이후 교회를 휩쓸었던 사상으로 이는 특수한 신심과 엄격성을 가장하고 일면적으로 과장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원리설과 은총설을 가톨릭 신학과 신심에 도입하였다.¹²⁹⁾

이 사상은 보수주의로서 내세 중심적이며, 독선적이며, 권위주의적이며 문화적으로는 절대 우월주의요, 유럽 중심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경향은 프랑스 성직자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이루고 있었고, 이것이 비유럽지역의 전교로 연결되면서 대상 지역의 전

126) 노길명, “가톨릭과 한국 사회 발전”, 「한국 사회와 가톨릭시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3.

127) A, 프란쥬, 앞의 책, 374-375.

128) J, Houbie, 「가톨릭 사상사」, 강성위 역, 1965, 185-188.

129) A, 프란쥬, 앞의 책, 374-375.

통·종교·의례·윤리 등의 기존 가치체계 및 사회구조 체제는 파괴의 대상으로 거부되어지면서 식민주의와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후기 천주교의 사상적 경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¹³⁰⁾ 이런 사상적 기반을 지니고 있던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은 한불조약이후 자유로운 조건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다.

1886년 조약 체결이후 천주교회가 선교의 자유가 인정되자 교세가 급속도로 신장되었는데, 특히 가장 먼저 교세가 성장하였던 곳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었다. 그 이유는 지역적 조건 때문에 가능하였는데 즉, 모든 외교공관이 서울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교를 비롯한 선교사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선교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보장되었다. 따라서 피신하여 있던 타 지역의 교인들이 경기도 지역으로 다시 이주하여 왔으며 탄압을 받으면서 신앙을 포기하였던 지역 교인들 가운데 교회로 돌아오는 자들이 늘어났다.¹³¹⁾

1890년대 이후로는 각 지역별로 선교사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예전과는 달리 한불조약에 규정된 치외법권을 행사하며 자유롭게 전교를 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교세는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한불조약에서의 치외법권의 내용을 보면 프랑스 선교사들은 호조(護照)¹³²⁾를 가지고 조선의 각 지역으로 여행이 가능했고, 선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아 내게 되었다. 또한 호조 없이도 국내 여행이 가능하며, 프랑스인이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조선 관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영사관에 인도되어 프랑스 법에 의해 다스려졌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은 이젠 더 이상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지방관들에 의하여 ‘양대인(洋大人)’이라 불리는 특권적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130) 노길명, 앞의 책, 203-204.

131) 명동천주교회, “1886년 보고서”, 『서울교구연보 1』, 1984, 47.

132) 조선 말엽에 우리나라 내지(內地) 다니던 외국인에게 발행하여 주던 여행 증명서.

1866년 천주교 탄압이후 교인들은 대부분 원래 거주지로 피하여 전라도·강원도 등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왔다. 그들은 관의 검거망을 벗어난 산간벽지에 주로 분포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1866년 한불조약의 체결이후 몇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들 산간지역의 교인들은 읍내와 떨어져 있어서 관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었고, 철저한 폐쇄적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산간지역의 교인들은 주로 수공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빈민층이 대부분이었고, 탄압이 심했던 충청도 지역의 교인들은 산간지대에 교민 촌을 형성하여 담배농사를 하면서 은둔하여 살다가 1890년대 이후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였다.¹³³⁾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지방에서 일어났으며 “1890년대 중반이후 천주교회의 중심구역은 산간지대에서 평야지대로 서서히 이동하였다. 개종자들의 증가로 교인 촌의 인구가 증가하자, 넓은 계곡이나 평야로 내려와서 논농사를 짓는 교인들이 늘어났으며, 각 지역별 수요물량이 읍내나 개항장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교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다양해졌다.”¹³⁴⁾ 우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유력 양반층의 입교가 있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양반층의 입교는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었으며 그들의 입교가 교세 확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입교자 계층은 향리층과 하급 관속들이었다. 전라도·제주도 등 여러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들의 입교는 천주교회가 탄압을 받던 시기와는 달리 강력한 외세를 등에 업고 하나의 사회세력으로 표면화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일반 민중들은 다양한 입교 경향을 보였다. 그 입교 동기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는 순수한 종교적 동기에 의하여 입교하였던 자들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천주교의 교리에 이끌려서 입교하거나, 천주교의 의식과 기도의 효과에 영향을 받아서 입교하였다. 1866년 천주교 탄압 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충청도 제천 지역의 교

133) 명동천주교회, 앞의 글, 50.

134) 명동천주교회, 위의 글, 53.

인촌 근처에 거주하던 안가(安歌)가 교민들을 괴롭히다가 교민으로부터 십계명과 주요 교리를 듣고 개종하였던 사례가 있다.¹³⁵⁾ 또한 1887년 경상도 영천에서는 콜레라의 유행을 막기 위하여 지방관이 천제(天祭) 명령하였는데 교민들이 이를 거부하고 촌민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여 교회식으로 기도를 하니 그 유행병이 다 사라져서 주민 다수가 입교의 의향을 비추었다. 그리고 부근 안의에서는 교민회장이 환자의 곁에서 간호를 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일부는 회복하였고, 사망한 자들에게는 교회식으로 대세(찬)를 치러주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도 예비신자의 수가 증가하였다.¹³⁶⁾

이처럼 천주교 교리의 구원 신앙적 요소에 감화되어 입교하는 사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1860년 탄압시기 천주교 신자들의 입교동기가 대부분 내세 지향적 성향을 띠었던 것에 비하면, 한말에 와서 그 비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보여 진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세력에 의지하여 현실적인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들로서, 한말의 전형적인 교민의 형태였다. 이런 입교 동기를 ‘소위 양대인적 자세(洋大人の 藉勢)’라고 했다. 한불조약 체결직후 향촌에서의 지방관이나 일반 민인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이전처럼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배격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외국인 신부가 직접 개입하여 교민을 위협하는 향반이나 민인을 직접 불러서 경고하거나 형량을 가하고, 지방관의 권한을 넘어서서 감옥에 갇힌 신자를 석방시키기도 하였다. 선교사들은 이전과 달리 성직자 복장을 하고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였고, 교인들도 교회의 구성원임을 숨기지 않았다.¹³⁷⁾

이처럼 신부들이 향촌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교인들은 이러한 힘에 의지하고자 더욱 양대인 자세(洋大人 藉勢) 풍조가 빈번

135) 명동천주교회, “1887년 보고서”, 「서울교구연보 I」, 1984, 54-55.

136) 명동천주교회, 위의 글, 59-61.

137) 명동천주교회, 위의 글, 130.

하였고, 교회는 하나의 사회세력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바탕으로 입교한 이들의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을 신부의 대리인으로 칭하여 민인들로부터 금전을 수탈하거나 민인을 억압하는 형태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신부에 의지하여 관이나 양반층의 수탈로부터 보호받고자 입교하는 형태가 있었다. 이런 모습은 전국적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전라도와 제주도·황해도 지역이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과거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입교하여 오히려 교세에 의지하여 범죄를 일삼는 형태가 있었다. 특히, 이런 형태는 동학 농민운동이 진압된 후 농민군들이 동학운동을 계속 유지하고자 천주교에 들어오는 이들이 많았다.¹³⁸⁾

이처럼 조선후기 천주교는 강력한 사회세력을 갖추게 되면서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라기보다 위의 세 가지 형태처럼 교회의 세력에 빌붙어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많은 폐단을 일삼고 있었으며, 그래서 교회에 대해 향촌 사회가 반발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또한 이런 현상은 국가권력의 약화와 지방 통치체제의 문란, 이에 따른 관리들의 폐단에서도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3) 제주도 신축년 민란의 경과와 원인

① 천주교 수용과 전교

제주도의 천주교 수용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처음으로 유입되어서 수용된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뽀텔주교의 보고서에 의하면 1899년 이전에도 드물게 신자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¹³⁹⁾ 즉 “1866년 이전에 몇몇 신자들이 이 섬에 살았다. 그러나 M. Peynet(뽀이네)신부

138) 박찬식, 앞의 글, 57.

139) 김옥희,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 전개과정”, 『탐라문화』, 제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146.

가 1899년 5월 처음으로 이 섬에 왔을 때는 그들에 대한 흔적이나 자취는 찾아볼 수 없이 사라졌다”¹⁴⁰⁾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록들은 분명히 1866년 이전에도 천주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최초의 천주교 전파의 기록은 김석익씨의 「증보탐라지」에 나오는 것으로, 제주도 사람으로서 처음 천주교와 접촉한 사람을 김복수라는 사람이라 한다. 그는 임진왜란(1592-1598)에 풍파를 만나 안남국에 표착 하였다. 그곳에서 만나게 된 일본사신을 따라, 일본의 오사카성으로 가서 그리스도교인인 구라파 왕의 사신들을 만나고, 교리책 및 기도문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후에 다행히 배편을 얻어 제주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¹⁴¹⁾ 다음으로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상 유배지였다는 점에서 천주교와의 접촉이 1866년 이전에도 가능했으리라 본다. 즉, 제주도에는 조선시대 많은 학식을 가졌던 유배인들이 살았고 한편 사학징의(邪學徵義) 기록에 의하면 천주교인이라는 명목으로 유배되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예가 황사영의 부인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¹⁴²⁾와 그녀의 묘가 지금도 제주도 모슬포에 남아 있다는 사실로 유추해 볼 때 황사영의 부인인 정난주는 천주교 관계의 박해로 이곳에 유배 온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적어도 그 자신만이라도 신앙생활을 보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¹⁴³⁾

천주교 전파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은 CH. Dallet 교회사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 즉 1858년 8월 5일자 장 Berneux주교의 파리 외방전

140) 김옥희, 「제주도 신축년 (1901) 교난의 원인」,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제 9권, 1980, 187.

141) 유흥렬, 「한국천주교회사」, 서울; 가톨릭출판사, 1962, 935.

142) 정난주는 인품이 좋은 서울 할머니로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켜 가르침을 많이 베풀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난주는 마을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직접적인 천주교의 교리와 가르침을 전하지 못했을지언정, 그녀의 일상생활 속에서 천주교의 근본의미와 뜻을 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김옥희,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 전개 과정” 「탐라문화」 제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147.

143) 이정훈, 앞의 책, 264.

교회에 보고한 서간의 기록을 보면,

펠릭스 베드로라는 제주도민이 탄 배 한 척이 1856년 풍랑을 만나 중국의 광둥지방으로 표류하던 중, 같이 배를 탔던 5명의 친구를 잃고 다행히 영국 배에 구제되었고 그는 홍콩에 있던 천주교 신부 덕으로 넘겨져 병을 치료받고 있던 거기서 조선 신학생 한 명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신학생의 가르침으로 영세하고 입교하였던 것이다. 그 후 펠릭스 베드로는 1858년 조선에 귀국하여 폐롱권 신부와 최양업 신부를 만나 교리책을 얻는 한편, 정주교와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 가지고, 제주도로 돌아가서 도민 20여명과 그의 가족 40명을 개종시켰다.¹⁴⁴⁾

고 되어있다.

뤼텔 주교의 보고서에 말하는 “1866년 이전, 이 섬에 몇몇 그리스도교인이 회소하게 살았으나, 선교사들이 1899년에 이 섬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자취나 기념될 만한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1866년 이전의 교인의 흔적이란 것이 아마 펠릭스 베드로에 대한 것으로 여겨진다.”¹⁴⁵⁾ 이런 기록들을 살펴볼 때 이미 철종 시대에 우연찮게 이루어졌지만 제주도에는 교인들이 있었으며 적어도 20여명 이상이 신자가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병인교난 때문에 지하고 숨어들어 갔거나 선교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천주교 전교는 1886년 프랑스와의 한·불 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신앙의 자유를 얻어 뫼텔 주교시대에 이르러 189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889년경 제주도 중문면 색달리에 거주하는 양베드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육지부에서 세례를 받고, 제주에 돌아와 신아오스당과 신바오로 형제와 함께 전교 하였다. 이에 양베드로는

144) 김옥희, 「제주도 신축년 교난사」,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 태화출판사, 1980, 25 - 26.

145) 김옥희, 위의 책, 5.

제주도 안에서 선교사를 맞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장본인이 되었다. 즉, 최선흥 신부의 1935년 9월, 10월호의 가톨릭 연구지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도민은 일반으로 순박하여 공검(恭儉)하여 교사(郊社)의 예로 자기 정신과 양심을 지배하더니 고려 충렬왕 2년에 불교와 잡신교가 침입하여 도민성을 침란케 하였고, 이조 문치(文治)의 화(化)가 선정됨에 따라 유교가 대흥 하였다가 그 말년에 윤리가 문란하던 차 광수 3년 강생 1899년에 이 남쪽나라 외로운 섬으로 쓸쓸한 겨울바람이 끝을 맺고 본도 중문면 색달리에 거주하는 양베드로가 육지에 머무를 때 영세 입교하여 열심 수계하다가 고향에 돌아와 신아오스딩, 신바오로 형제와 대정면 보성리에 사는 김생원과 강도비아에게 전교하여 모든 가정이 열심 수계하나 목자 없음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던 중 민주교 각하께서 바오로 배신부와 아오스딩 김신부를 제주 본당 신부로 임명하였다.¹⁴⁶⁾

이로써 제주에도 선교사들에 의한 본격적인 전교가 시작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전교의 성과가 그리 밝지 못했다. 이는 당시 제주라는 섬의 지역적 특색과 그에 따른 민중들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난폭하고 좀 야만적이고 외국인을 대단히 경계하고 무엇보다도 대단히 미신적이어서 처음에는 전교 되지 않았고 또한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드물고 보니 이것 역시 복음전파에 큰 장애거리로 나타났다.¹⁴⁷⁾ 그래서 일년이 지난 1900년에도 겨우 19명의 영세자를 가질 수 있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 1년 사이에 개종자는 급속히 증가하여 신축년 민란이

146) 최선흥, “제주도의 학살사건과 본당연력”, 「가톨릭 연구」, 1935, 9.10월 합병로, 177 - 178.

147) 한국교회사 연구소, “제주본당의 초창기”, 「교회와 역사」, 합본 1집, 서울, 1983,

일어나기 직전인 1901년에는 영세자가 242명, 그리고 예비자도 6 -7 백여 명으로 급증하였다.¹⁴⁸⁾

그러나 선교사로 처음 내도(來島)한 빼이네 배신부는 자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돌아가고, 그 후임으로 L. Marcel Lacrouts(구마슬) 신부가 부임하였고 개종자가 늘어남에 따라 1901년 5월 J. G. Mousset(문제만)신부가 파견되었다. 구신부는 제주 성내를 사목하고, 김신부와 문신부는 정의군 서흥리의 한논의 성당을 담당하였다.¹⁴⁹⁾ 이렇게 천주교의 교세가 갑자기 확대된 것은 제주도민들의 마음속에 권력층에 대한 원망심과 반항심이 누적되어 있었고, 숙명적인 빈곤과 역사적인 불평과 원망심으로 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종 광무초에 천주교가 처음 포교되기 시작하자,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평등한 입장에서 모두 교우로 대해주는 천주교에 감격하여 입교하거나 또한 봉건적인 억압과 인습에서 해방되고 구원될 것으로 생각하여 입교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¹⁵⁰⁾ 여기에 당시 제주목사와 군수들이 주민들에게 돈을 강탈하여 그들에게 빼앗긴 사람들과 1900년경부터 봉세관을 보내어 정부의 부족한 왕실재정을 메우기 위해 각종 잡세를 징수하는 등의 정치의 부패와 문란도 교세 확장의 이유였을 것이다. 즉, 종교적인 부분보다는 민생고에서부터 탈출구를 찾는 도민들의 심리적인 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제주에 유배와 있던 학식 있는 자들이 천주교에 입교한 사실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중앙정부에서 쫓겨난 양반들의 집합소로서 많은 울분과 반감을 갖고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사의 허무함과 인생관에 대한 사색에서 입교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앙정계 진출을 위해서 프랑스 신부의 힘을 빌릴 목적으로 천주교회를 가까이 대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당시의 제주에서는 총인구 약 4만 명중, 당시 천주교가 1천명 가까운 교인을 확보했으니,

148) 제주도사 연구회, 「제주도 연구」, 창간호, 경신인쇄소, 1991, 94참조.

149) 유홍렬, 「고종치하의 서학수난의 연구」, 375 - 376.

150) 김태능, “성교난”, 「제주신문」, 1962 요약.

북쪽의 제주 읍과 남쪽의 한논에는 성당을, 각촌에는 간단히 공소가 설치되어 천주교의 교세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¹⁵¹⁾

② 신축년 민란의 경과

1901년 신축년 민란은 반 식민지적 한반도 정세 하에 프랑스 천주교의 교세확장과 이에 따른 폐단, 그리고 광무정권의 조세수탈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1900년 전후 발생한 단일 민란으로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고양된 항쟁이었다. 신축년 민란은 1901년 4월초 대정지역에 일종의 민관합동 자위단 조직으로 구성된 ‘대정상무회사’를 모태로 한다. 대정군수 채구석과 향장 오대현이 주도한 이 조직체는 천주교인들과 중앙에서 파견된 봉세관의 횡포에 대한 자구책으로 지방관리, 농민, 상인 등의 초계급적으로 참여했다.

당시에는 왕실이 조세수취를 강화해 고갈된 국고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1899년부터 제주도에도 봉세관을 파견하면서 교인들의 작폐가 심해졌다. 이는 지역관리들의 비협조적 자세에 부닥친 봉세관이 천주교인들을 끌어들이어 이들에게 조세징수권을 맡겼기 때문이었다.

지세, 전세, 삼림세, 어망세 등 없던 세금이 잇따라 새로 생기고, 조상 대대로 부쳐먹던 밭을 목장지 등 공토라며 하루아침에 빼앗아가기도 했다. 천주교인들은 심지어 교당에 형틀과 투옥시설을 갖춰 놓고 마을에 들지 않는 주민들을 잡아다 괴롭히기도 했다. 이들은 또 교인들과 분쟁을 벌였다고 하여 명망 있는 유학자 오신락 노인을 교당으로 끌고 가 고문 끝에 죽인 일도 있었다. 결국 대정상무회사가 결성된 지 한달만인 5월초 대정군 아전인 한 교인이 이 지역 웃어른들인 오대현의 첩을 푸대쌈 해간 사건을 계기로 대정상무회사의 유생들과 천주교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 이를 계기로 대정군민들은 인근 정의군

151) 유홍렬, 앞의 책, 376.

일부 주민들과 함께 교폐와 세폐에 쌓인 한을 호소하러 무리 지어 제주성을 향해 떠난다.

그러나 이들 비무장 시위대는 대정과 제주성의 중간지점인 한림에서 선교사의 지휘아래 기습해온 무장교인들에 의해 진압 당한다. 이때 도민 수명이 죽고 장두 오대현은 교인들에게 붙잡혀 교당에 감금된다.

이에 대정군민들은 제주, 정의, 대정 삼군에 격문을 보내어 봉기할 것을 호소했고, 삼군의 도민들이 일제히 이에 호응함으로써 항쟁은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된다. 격문은 “교도들이 살생, 폭행, 재물탈취를 일삼아 민폐를 짓고 있으니 일어나 저 무뢰배들을 토멸하자”고 호소했다. 대정군민들은 강우백을 대장으로 한 동진과 이재수를 대장으로 한 서진을 대정에서 출발시킨다. 동·서진은 속속 합류하는 각 지역 민군들을 끌어안고 제주성으로 몰려갔다.

1차 시위가 실패한 지 닷새만에 다시 제주성 밖 황사평에 집결한 민군수는 수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제주도 전체에서 평균 한집에 한 명 이상은 참여한 숫자였다. 교인들은 제주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굳게 닫아걸었다. 이들은 이어 관아의 무기고를 열고 탈취한 무기로 무장한 민군과 대치하게 된다. 교인들은 성밖으로 민군을 기습 공격해 십 수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과부적임을 느낀 프랑스 신부들은 전령을 보내 군함과 병사의 지원 파병을 요청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체포했던 장두 오대현을 풀어주고 그를 통해 민군 쪽에 제주성 포위를 풀고 강화할 것을 제의하는 등 지연전술을 구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군은 강화제의에 응하지 않았고 오대현은 다시 민군의 장두로 나섰다.

결국 대치 10여일 만에 성내에 있던 도민들이 성밖의 민군에게 호응해 쫓기함으로써 교인들을 물리친다. 성내 도민들은 옥문을 부수고 성문을 열어 민군을 맞아들였다. 제주성에 입성한 민군은 이재수의 지도 아래 교인 수백 명을 색출해 살해한다. 그러나 제주성 입성을 전후

해 비타협적 노선을 분명히 한 이재수의 서진과 중앙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투항하자는 오대현 등의 동진 사이에 분열이 생긴데다 정부군과 프랑스군이 신임목사와 함께 제주도에 파견되어 오면서 항쟁은 종말을 맞게 된다. 5월말 신임목사 이재호와 프랑스 수군 2백70명을 태운 군함 2척이 도착하고, 이리 6월초에는 황실고문인 미국인 샌드(sands)와 정부군 1백여 명이 도착해 민군으로부터 20여일 만에 제주성을 탈환한다. 민군과 정부군은 교폐, 세폐의 근절과 민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민군을 해산하고 화해한다는 데 합의한다. 그러나 정부군은 약속과 달리 장두 40여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은 서울로 압송되어 영사재판을 거쳐 교수형에 처해졌다.

(4) 평가

대충 신축교안의 원인들을 정리해 보면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관(官)에 대한 조세 납부 및 징수의 문제, 개인적인 채무 및 금전거래의 문제, 토지 관련 문제 등이 있다. 다음으로 천주교 사제나 교민의 월권이 있었다. 또한 교회의 의식이나 교리가 당시의 기존 관념 및 전통신앙과 대립하고 있었다. 제주도 역시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미신타파를 목적으로 신당(神堂)이나 신목(神木)을 없애 버림으로서 많은 도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런 원인들을 살펴보면 교회측과 대립한 계층들을 알 수 있다. 즉 지방 관리층과 향반토호층 그리고 민인층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지방 관리층은 지방관뿐만 아니라 일반관속, 향리층, 장교층 등의 하급 관리층도 포함한다. 다음으로 향반토호층은 향임을 비롯하여 향반층, 전직 관리계층 등의 토호층¹⁵²⁾을 총칭한다. 교안

152) 그 지방에 토착민으로 양반을 견제 할 세력과 재산을 가진 계층.

의 전개 양상은 교회측에서 관·민을 공격하는 경우와 이와 반대로 관·민이 이교인들을 탄압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크게 교인들이 관·민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관·민을 체포하여 교당에 데리고 온 후 사형(私刑)하는 경우, 신부가 교민과 민인들의 갈등·대립에 개입하여 교인측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교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관(官)에서 교인을 체포하여 처벌하는 경우, 양대인(洋大人)신부를 직접 상대로 하여 공격하는 경우, 전면적으로 민인들이 와서 교회 폐단을 척결하기 위해 민란을 일으키는 경우”¹⁵³⁾ 등이 있었다.

사실 제주의 신축년 민란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외교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교회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내의 교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교회의 힘을 등에 업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자 했으나 교회측에서는 교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올바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인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외교적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힘이 없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기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恨) 맺힌 이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이 한(恨)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난이 발생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주민중은 두 세력(교민과 일반민중)으로 나뉘게 된다. 이는 제주민중의 한(恨) 역시 두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으나 면밀히 살펴볼 때, 하나의 한(恨)으로 통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한(恨)의 해방을 위해 화해와 용서의 마음인 한(恨)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 간의 이익관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횡포로 인하여 올바로 자신의 몫을 다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반성하고자 함에 있다.

153) 박찬식, 「한말 천주교회와 향촌 사회」 서강대학교대학원논문, 1995, 41-44.

분명한 것은 일차적으로 한(恨)맺힌 이들은 민인들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형편에 과도한 조세 등을 납부하고 있었고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축년 민란의 사후(事後) 정리 과정에서 향토사가측은 “당시 배상금의 문제에 있어서 마치 교전국이 항복한 패전국에 부과시키는 배상과 같은 인상을 준다”¹⁵⁴⁾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란 이후 제주도민은 세금과 배상금¹⁵⁵⁾이라는 이중부담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한(恨)맺힌 이들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동자들의 참수가 있었다.

두 번째로 피해자는 교인들이다. 민란이 발생하고 “프랑스 군함 2척이 제주 산지포에 입항하여 진압하는 사이에 도내 천주교 신자 700여명이 관덕정 마당 등에서 참살되는 상당한 인명피해”¹⁵⁶⁾가 있는 뒤였다.

결국 신축년 교안을 통한 피해자는 제주민중이었다. 제주민중이라는 공동체가 이 사건을 통하여 생명과 재산과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다. 교인들은 순교의 마음으로, 도민들은 정의실현을 위해 일어난 항거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 모두는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지 못한 힘¹⁵⁷⁾에 의하여 한(恨)을 갖게 된 것이다. 제주민중들은 그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고 여길 수 있으나 진정한 가

154) 김태능, 「제주도 사론」, 서울 세기문화사, 1982, 344.

155) 정부는 배상금 문제와 희생자의 매장지 문제에 있어서 패전국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한불조약’에 대한제국 정부측은 프랑스 신부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을 저버렸으니 이에 응당 손해된 액수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을 프랑스 공사측은 주장하였다. 이 배상금에 대하여 채구석이 물도록 요청하였는데, 채구석은 민란을 일으킨 곳의 사람들로부터 균등하게 걷도록 청원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두명의 신부에 대한 4,160원과 신부 고용인에 대한 천원(구마슬 신부 : 1,700원, 문제만 신부 : 2,800원)이다. 이 액수는 당시 교원 월급 20원, 군수봉급 100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가히 놀랄만한 액수였다. 거기다가 배상금 지불시한이 걸리자 매년 7푼5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그 동안에 배상금을 5,882원 40전으로 늘였다. 결국 도민들은 4만5백23가구에 매인당 15전6리 씩 부과해서 6개월 만에 징수가 완료 되었다 : 김인제, “제주의 신축년 천주교 교란”, 「제주도」, 제 30호, 1967, 112 참조.

156) 홍순만, “천주교란”, 「제주도지 上권」, 1983, 77.

157) 국가간의 외교적 차원, 천주교의 선교 방향성 차원, 정치적 차원 등에서 힘 있는 자들.

해자는 힘있는 자들이었다. 화해와 용서의 마음(恨)을 읽어내지 못한 이들의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의하여 제주민중들은 체념하거나 현실을 변혁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의 역사 과정에서 역시 우리는 체념적 차원을 넘어서면서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제주민중들의 한(恨)의 표출을 바라볼 것이다. 한(恨)을 해방시키는 것, 즉 화해와 용서를 원하는 제주민중들의 마음은 역사의 흐름에서 계속 밝혀왔다. 하지만 제주민중들은 끊임없이 한(恨)의 해방을 위해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 화해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한(恨)의 현실 변혁적 의지의 표출인 것이다.

3) 일제강점기¹⁵⁸⁾

(1) 3·1운동 직전의 제주 상황과 3·1운동의 영향

1905년 이후 일본의 침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행정은 1906년 제주부가 제주군으로 개명되고, 정의군·대정군이 신설되어 3군제를 형성하였다. 1907년 가을에는 일본의 군인들이 제주·대정·정의 3군의 군기고를 파괴하고 무기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면리(面里)에 존재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직제들 즉, 약정(約正)·존위(尊位)·경민장(警民長) 등의 제도를 없앴으로써 향촌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해 나갔다. 제주도민이 산천단에서 해마다 거행하던 한라산신제를 혁파해 버린 것도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은 1914년 4월 1일부로 제주의 면의 이름 및 구역 설정을 새롭게 하여 면을 침략

158) 김동진, “제주지방 3·1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박찬식, “1918년 중문지역의 항일운동”; 김봉옥, “제주에서 좌익항일운동의 개요”; 김영돈, “제주해녀의 항일운동”, (공보관실, 「제주도 통권 99호」, 1996, 요약.

수단의 하나인 징세와 치안의 말단기구로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그들은 통치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징세 및 경찰력을 점차 강화¹⁵⁹⁾하기 시작한다.

당시 제주도의 경제적 상태는 도민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이 전국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극히 열악한 상태였다. 지주 또는 결인이 거의 없는 자작농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역둔토조사(驛屯土調査)와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자작농이 토지를 강탈당하고 말았다. 1908년에는 역둔토에 설정되었던 도지권(賭地權)을 아무런 보상 없이 폐지시켰다. 또한 1912년의 지적측량과 아울러 토지조사사업(1913~1916)이 이루어졌다. 즉, 일제는 1913년 8월 5일 제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토지조사령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임시토지조사국 또는 해당 관리에게 1913년 8월 15일부터 1914년 5월 15일까지 제출토록 조치하였다. 즉 토지 소유자는 기한 내에 그 주소·성명·소유자·지목·등급 등을 신고하여야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들은 복잡한 신고양식 및 근대적 법률 관념에 어두워 조상 전래의 농지를 그대로 몰수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구나 도민들의 생활은 1911년 대 풍우, 1913년 대 기근, 1914년의 흉년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지마저 빼앗긴 것이었고, 설상가상으로 1917년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이에 농민들의 절대적 빈곤은 일본사회의 값싼 노동력 요구와 맞물려 1917~191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으로 노동력 유출은 이전에 비하여 매우 높아졌다.

한편, 1914년에는 총령 제136호 시장규칙에 의하여 시장을 약10개소 설치한다. 이 시장 설치의 근본적인 의도는 일본의 잉여 상품을 비싼 값으로 제주도민에게 판매하고자 한 것이었다. 고액의 시장세를 거

159) 1909년 제주 유림들이 중심이 된 제주의병이 고승천(高承天)을 중심으로 일어남으로써 도민의 집단적인 저항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오히려 경찰력의 강화라는 구실을 만들어주게 된다.

두어들임으로써 징세액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설치가 도민의 경제적 상태를 호전시킬 수는 없었다. 그리고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제주지점을 설치하여 주로 토지 경영과 육·해산물의 약탈을 위한 방조기능을 수행케 하였다. 또 농민들을 상대로 토지저당 등 고리대 사업을 시작해 그 실상은 도민들을 약탈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차(1912~1913년), 2차(1914~1917년)에 걸쳐서 진행된 총 181km의 일주도로 건설은 토지의 강제적인 몰수, 도민의 부역을 무리하게 동원함으로써 도민의 원성을 자아냈다.

이러한 일본의 압제는 전국적으로 발발한 3·1운동에 제주도 역시 참여하게 하였다. 제주지역에서의 3·1운동은 제주의 관문인 조천 지역을 중심으로 1919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도 3·1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해당한다. 이 운동의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제주 3·1운동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교육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로, 3·1운동은 학생운동에도 영향을 주어, 그 이후 학생들에 의한 항일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나갔다. 셋째로, 제주지역에서 각종 사회단체가 조직되고, 활동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넷째로, 민족해방운동의 한 방편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제주해녀의 항일운동

1931년·32년, 2년에 걸쳐 북제주군 구좌읍을 주무대로 불길처럼 타올랐던 제주 해녀의 항일운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투쟁의 주체가 연약한 여성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순수한 여성

집단에 의하여 연인원 1만 7천여 명이나 줄기차게 생존권을 획득하기 위한, 줄기차고 강렬했던 투쟁을 벌인 사례는 일제강점기에서 이미 찾아 볼 길 없다. 이른바 ‘女多’의 섬으로 알려졌다고 제주 여성의 검질긴 생활력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졌거니와, 이 제주해녀의 운동은 제주 여성의 유별난 자주성과 강인한 자강불패의식을 어련히 드러내 주었다는 점에서도 뜻이 깊다. 둘째, 한국 최대규모의 어민투쟁이었다는 사실을 내세울 수 있다. 셋째, 제주도의 3대 항일운동¹⁶⁰⁾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기영(玄基榮)의 <바람 타는 섬>에서

“육지부와 격절되어 있어서 유달리 공동체의식이 강한 도민은 예로부터 거친 외세의 파도에 공동체적으로 대처하는 항쟁이 잇따랐다. 그러므로 급진 이념을 따지기 이전에 도민은 원초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공동체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3역시 제주도 특유의 항쟁의 전통에다 급진적 이념이 접목되어 발발했다.”

고 보면서 제주민 특유의 공동체의식 내지 자치주의의 발로로 제주해녀의 항일운동을 평가하고 있다.

① 원인

제주도의 경제적 중추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바다로 쏠리기 시작하게 되고 해녀의 물질로 말미암은 소득이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점차 육중해져 갔다. 해녀의 물질로써 해산물의 판로가 넓혀짐에 따라 제주도는 자기 완결적인 경제권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민들로서는 해녀의 지위가 드높아져 간다는 사실을 자인하게 되었고 이들의 권익과 인권문제를 종전과는 다른 시각

160) 조천에서 일어난 3·1운동과 무오년 법정사항일운동과 더불어 제주해녀 항일운동을 3대 항일운동이라 할 수 있다.

에서 중시하기에 이른다.

제주도 해녀가 한반도로 바깥물질을 떠나기 시작하기는 1895년 부산의 영도로 나간 게 처음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함경북도, 일본, 중국, 블라디보스토크 등으로 확대된다. 바깥물질은 소중한 현금수입원이었기에 집안 살림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하지만 섬 안에서나 섬 바깥에서나 목숨 바쳐 물질하는 해녀들 주변에는 이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이 따랐다. 섬 바깥물질에서 해녀들의 수익이나 권익을 짓밟았던 이들로써는 객주¹⁶¹⁾와 객주·해녀 사이에 끼어들어서 착취하는 거간꾼이 있었다. 그들을 통한 착취와 인권유린은 이루 다 기록하기 어렵다.

해녀들의 인권과 권익과 수익이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보다 못한 제주의 유지 김태호(金泰鎬) 등이 1920년 4월 16일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을 창립한다. 제주 유지들의 의지와 목표는 뚜렷했다.

“해녀는 객주나 중개인이나 일본사람들의 종과 같이 노동만 하여 줄 수 없으며”, “해조회사의 노예가 될 수 없다”

는 강력한 주장이었다. 김태호는 조합의 목적이 ‘별이 나가는 해녀에게 자금을 유통하여 줄 일, 그들이 별이하는 해안에서 어물을 잡을 권리를 보장할 것, 잡은 어물을 공동판매에 붙일 것’을 표방한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조합의 설립 초에는 이러한 목표에 맞게 성과를 거두어들이었다.

그러나 제주해녀의 바깥물질을 나가는 수요가 불어남에 따라 부산이나 경상남도 일대의 어업조합측과 심한 갈등과 압력을 빚게 된다.

161) 물상 주인으로써 부산을 근거지로 해조상인인 일본인 무역상 밑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이다. 이들은 해녀를 모집하고 돌아올 때까지 생산물 판매를 알선하고 객지생활을 일일이 간섭하였다. 전도금(前渡金)을 내주기도 하면서 해녀를 모집하여 얹어매는 일이 허다하고 채취물은 그 객주에게만 팔아야 했다. 이때, 이른바 ‘부정검근(不正檢斤)’이라고 저울눈을 속이면서 헐값으로 사들이고 일본인들의 해조회사에 넘기곤 하였다.

특히 기장(機張)에서는 심한 욕설과 폭행사태까지 발생한다¹⁶²⁾. 또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해녀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창립된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 그 조합장을 제주도사가 겸임함으로써 조합의 성격이 점차 어용화 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해녀의 실제수입은 의당 받아야 될 매상고의 2할¹⁶³⁾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심각한 수익 침해요,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일제의 ‘선구전판매제(先口錢販賣制)¹⁶⁴⁾’를 통한 수탈은 극에 달했다.

② 항일 운동의 전개

해녀들에 대한 일본 관헌들의 가혹한 대우와 해녀의 권익을 옹호한다고 발족된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어용화는 드디어 1931년 여름 구좌면 하도리에서 거세게 폭발한다. 그러나 조합측에서는 해녀들에 대하여 하등의 성의를 보이기는커녕, 되레 협박과 공갈을 일삼았다. “만약 조합의 명령에 복종치 않을 경우에는 입어권을 몰수하고, 입어를 못하게 한다”고 협박했다. 그네들이 아무리 협박과 공갈을 일삼는다 하더라도 생존권과 직결되는 해녀들의 강력한 투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해녀들은 조합측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면서 진상보고와 선전활동을 강력히 벌임으로써 해녀들의 생존권과 권익을 한사코 사수하기 위해서는 해녀들 모두가 대동 단결하여 그들의 부당성을 강력히 항의하고 거세게 항의 운동을 일으킬 길밖에 없다는 주장을 폭 넓게 퍼뜨렸

162) 물질 나간 제주해녀들은 일본사람들에게도, 조선 사람에게도 이중으로 압박과 구속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이 바다 속에 빠져 죽는게 상책이라고 하여 일대 혼잡을 이루었었다.

163) 매상고의 5할은 해조회사에서 수수료로 뜯기고, 1.8할은 해녀조합에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되었으며, 이 외에도 조합비, 선주에 대한 임금, 소개인에 대한 사례비 등을 공제하고 나니 실 수입은 2할뿐이었다.

164) 선구전판매제란 해녀어업조합에서 은밀하게 암브로커들과 결탁해서 지정상인을 정하고 영업권을 내준다. 아직 바다 속에서 캐지도 않은 해산물을 은밀히 결탁한 지정상인에게 구전 입찰시키는 것이다. 이때 뇌물의 정도에 따라서 해산물의 가격이 정해졌더니 목숨을 바쳐서 캐어낸 해산물은 그야말로 일제의 배를 채우는 꼴이 되어버렸다.

다.

정의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해녀들의 격렬한 항의의 의지는 날이 갈수록 불타올라 1932년 1월 7일, 세화리의 오일장 날을 이용하여 해녀집단은 분연히 일어선다. 그리고 1월 12일 제주해녀 항일 시위가 대규모로 전개된다. 해녀들은 “우리들의 요구에 칼로써 대응하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대응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어업조합의 부당성과 무성의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도지사는 요구 사항들을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전혀 회답의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해녀들의 요구조건은 다음의 8개 조항을 요지로 한다.

- 일체의 지정판매 절대 반대
- 일체의 계약보증금은 생산자가 보관
- 미성녀와 40세 이상 해녀조합비 면제
- 병 기타로 인하여 입어 못한 자에게 조합비 면제
- 출가증 무료 급여
- 총대(總代)는 리별(里別)로 공선(公選)
- 조합재정 공개
- 상인을 옹호한 서기를 즉시 면직

이밖에도 ‘도지사의 조합장 겸직 반대’, ‘일본 상인 배척’ 등이 포함되었었다고 한다. 해녀들의 항쟁이후 여러 차례 경관들과 충돌이 있었으나, 결국 해녀들의 요구 사항은 대부분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3) 평가

제주민중들은 현실에 대한 부조리에 대하여 단순히 참고 견디는 차원을 넘어서서 진정한 한(恨)의 해방을 노래하게 되었다. 한(恨)은 앞서 계속 강조하였듯이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의 부조

리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한(恨)은 화해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절대 권력으로 보여지던 일제에 의하여 짓밟히었다. 그래서 체념하는 이들이 있으며 현실을 변혁하고자 한(恨)을 자신들의 에너지로 이용하는 이들이 있게 되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짓밟히어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한 제주민중들은 3·1 운동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의 공동체요 하나의 한(恨)을 공유하고 있는 유기체적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제주민중의 한(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여성, 특히 <해녀노래>의 요사에 드러나듯 “저승길이 오락가락”하는 깊디깊은 바다 속을 누비며 다니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려 하지만 지나치게 수탈당했던 해녀들의 봉기는 오직 살아남기 위한 일대봉기였다. 정당하고 절박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줄기찬 투쟁이었다. 그럼에도 굳이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녀린 제주해녀의 수익과 권익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이 당시 도사를 비롯한 일본관헌들이었고, 집단투쟁의 상대 역시 일본의 관헌들과 경찰들이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역시 제주민중들의 화해와 용서를 바라는 수용적 한(恨) 무시되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주민중의 한(恨)을 풀기 위한 노력은 살펴볼 수 없다. 하지만 제주민중들은 자신들의 한(완전한 의미에서 용서와 화해를 바라는 마음에서의 恨)을 서서히 올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즉, “제주민중들은 한(恨)을 이미 오랫동안 침전된 좌절, 곧 과거의 정동체험만이 아니라 새 역사를 열 수 있는 힘으로 보게 되었다. 또한 제주민중의 소망인 것이면서도 새로운 구조를 탄생시키는 힘이기도 하며, 과거의 체험이면서도 미래의 삶을 열어주는 힘”¹⁶⁵⁾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제주민중들이 가해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역사를 뒤집기 위

165) 한완상김성기, 위의 책, 67.

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한(恨)을 알아달라는 것이다. 즉 화해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恨)맺히게 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제주민중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한(恨)은 체념으로 끝나거나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잠재능력”¹⁶⁶⁾으로써 자리하게 되었다.

3. 수용적 한(恨)

4·3¹⁶⁷⁾을 살펴보기 전에 어떠한 근거로 4·3항쟁이 화해와 용서를 염원하는 제주 민중의 수용적 한(恨)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3항쟁의 발단은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 각 오름마다 일시에 타오는 봉화를 신호로 500명 미만의 무장대가 11개 지서와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의 요인의 집을 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제주도의 비상 계엄령이 해제되고 제100전투경찰사령부, 해병대, 유격전 특수부대인 무지개 부대가 무장대 세력을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1954년 9월 21일 제주도 경찰국장 신상묵에 의하여 한라산 금족지역을 해제, 전면 개방을 선언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

166) 한완상·김성기, 위의 책, 70 : ‘변화를 바라는 잠재능력’은 가해자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는 자리가 마련되지만 한다면 恨맺힌 이들이 함께 하여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가르킨다. 즉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해 생긴 한(恨)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이다.

167) 황상익, “의학사적 측면에서 본 ‘4·3’”, 「4·3과 역사」, (제주 : 제주 4·3연구소, 1998), 45. : ‘4·3’이라는 명칭은 잠정적인 것이다. 즉 실상과 성격에 걸맞은 이름을 갖게 되기까지의 한시적인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진상규명 등 지속적인 작업과 그 진실에 합당한 조치 등 사회적 합의의 촉구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현재진행형’의 명칭이라 할 수 있다.

6년 6개월만에 제주지역이 평시 체제로 전환되어 4·3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제주민중들의 가슴에 새겨진 한(恨)을 또다시 역사의 뒤편길에 묻어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 민중들의 한(恨)이 사라지지 않는 한 4·3항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제주 민중들은 4·3항쟁 당시의 상황을 가슴에 묻어 두면서 체념적 상태로 머물고 있었지만, 서서히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진행하면서 진상규명 및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용서를 청하고 화해를 진정 바랄 때, 제주민중의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마음인 한(恨)은 해방되어질 것이다. 4·3항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 민중들의 노력은 결코 과거에 있어왔던, 폭력성을 띤 현실변혁적 의지로 표출되지 않고 있다. 그저 조용히 한 목소리를 내면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씨앗을 간직해 4·3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4·3은 제주민중의 수용적 한(恨)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시대적 배경

제주 역사는 물론 민족사에 최대 비극으로 기록될 4·3은 불행하게도 반 세기동안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왜곡·은폐되어 왔고 4·3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올바른 역사의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4·3항쟁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감춰져 왔던 4·3에 대한 진실을 살펴보고 제주 민중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작업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4·3항쟁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당시 시대적 분위기 안에서 제주민중들의 근본적인 ‘가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은 필요하다.

(1) 해방 직후의 제주도 경제¹⁶⁸⁾

역사 안에서 ‘가난’은 생활의 기본적인 한(恨)맺힘의 원인이 되면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한(恨)스러운 상황에 대해 생존을 위한 투쟁의 이유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조선은행 조사부가 펴낸 1948년 「조선경제연보」 제주도편에 묘사된 제주도 경제 상황을 보면,

1946년 말 제주도 총인구는 271,379명으로 이중 남자가 127,701명이고 여자는 143,678명이다. 리스트의 경제발전단계로 제2단계인 농목(農牧)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수산업의 생산관계도 원시적 자급자족의 범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분명 식민지시기를 통하여 내재되어 온 기본적 생활수준,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 생산 활동에 대한 의욕과 능력 등으로 그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농업생산 기반이 불안정하게 흔들려 양곡 부족 사태¹⁶⁹⁾가 발생하고 양곡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미국은 한국점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군사적 편의주의, 현상유지에 급급하였다는 전체적인 인상을 도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래서 해방과 함께 한국경제는 일본경제로부터 분리되고 연이어 남북경제로 분리되어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하였다. 특히 공업생산이 격감되었기 때문에 이 공산품의 가격상승이

168) 진관훈, “해방 직후 미군정기의 제주도 경제”, 「4·3과 역사」, 제주 4·3연구소, 창간호 2001, 136-164 참조.

169) 해방 이후 급진적으로 증가한 인구와 육지인들의 내왕 증가로 미곡소비 일반화되었고 그로 인해 미곡 부족 현상이 생겨났고 계속하여 다른 식량 부족 사태도 유발되었다고 보아진다.

두드러졌다. 그리고 재정, 금융, 무역도 해방의 충격으로 극심한 불균형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상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미군정은 물론 새로 출범한 한국정부도 통화증발이라는 비상수단에 의지해 해소하려 했던 결과 산업생산의 점진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통화증발과 인플레이션 간의 악순환이 지속되었다.¹⁷⁰⁾

결국 미군정은 처음부터 제주도 경제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오히려 현상유지, 민생안정 수준의 임시방편적 성격을 가지고 제주도 경제를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시 제주도 사회는 농업이나 공업과 같은 생산 기반의 위축과 곡물 및 각종 물자부족, 불안정한 사회분위기 등으로 발전을 위한 ‘생산’과 ‘축적’과는 거리가 먼 ‘생존’과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2) 4·3의 역사¹⁷¹⁾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은 곧 우리 민족의 해방을 의미했지만 미·소 양군의 군사적 점령을 통해 북측은 소련이, 남측은 미국이 관할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민족 해방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다.

제주도는 9월에 결성된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건국사업을 활기차게 진행하였다. 제주 민중은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고 적산

170) 당시 일본의 시장 경제 체제를 벗어 버리기 위해 도입한 ‘자유 시장기구’는 오히려 억눌려 있던 물가를 폭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하여 정부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재화를 흡수하여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물가는 제 값을 받기 위해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 형식의 통화증발 정책은 오히려 제주 시장 경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뿐이었다.

171) 제주교구신학생회, 「사삼 사태로 반 죽었어, 반」(광주: 광주가톨릭 대학교, 1996) 참조.

(敵産)을 접수·관리하면서 몰수한 군량미를 빈민에게 무상분배 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 민중들이 힘을 쏟은 것은 자주교육운동을 통한 사상과 문화의 보급이었다. 그러나 그 해 10월 미국은 군정실시를 선포하고, 건준위나 상해 임시정부 등 어떠한 정치세력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특히 당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던 좌익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적대적이었다. 대신 과거 식민지시대의 관료와 경찰조직을 그대로 접수하여 운영하는 길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군정기간 3년은 민족민주세력의 위축을 가져온 반면, 다른 한 측면에서는 친일 보수우익세력이 다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군정의 통치기구 개편은 식량난을 가중시킨 곡물소집정책과 함께, 민중에게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했다. 그래서 제주 민중들은 자신들의 뜻을 수렴하는 인민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었다. 이에 미군정은 우익의 입지를 넓혀주는 한편, 인민위원회의 해체 등 좌익계열을 공개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 3월 1일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3·1절 기념행사와 함께 3·1 정신계승,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 미군철폐 등을 주장하는 평화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미군정은 폭력으로 진압하고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하게 하였다. 이에 민중세력은 제주도 총파업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총파업을 계속하였는데, 이때 참여한 집단은 군정청과 관리, 행정공무원, 금융기관, 각급 학교, 산업단체 등 광범위하였다. 미군정 측은 이러한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극좌 경향의 요구로 해석하였고,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탄압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대량 구속, 대량 파면, 무자비한 고문 등이 이루어졌다. 미군정의 강경 진압에 제주도 지사까지 항의의 표시로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가입하자 미군정은 극우파들로 행정기관을 새로이 개편하고, 나아가 미군정의 대리탄압 세력인 극우 서북청년단을 제주도로 파견했다.

특히 서북청년단의 투입은 제주도 민중이 총칼에 개의치 않고 펼쳐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경찰보다도 경찰력을 더 행사하였으며, 테러와 무전취식, 금품갈취, 부녀자 폭행 등 만행을 일삼았다. 이에 제주 민중은 중산간 지역으로 몸을 숨기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정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굳히게 되었다. 이러한 민중의 의식과 결의가 제주의 좌익민족세력으로 수렴되고, 그들은 전국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미군정에 대한 방어적이고 제한적인 무장투쟁을 결행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4·3항쟁이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한라산에 봉화가 오름으로써 시작된 4·3은 그 투쟁목표를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민중생존권의 방어를 위한 자위적인 공격에, 정치적으로는 단선 단정의 저지를 통한 조국 통일문제의 해결에, 민족적으로는 민족해방에 둠으로써 민족자주화 투쟁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와 함께 민중의 목소리를 담은 전단을 뿌리고 봉화를 올리며 3개의 선거구 중 2개 선거구 선거를 무효화시킴으로써 5·10 단선 저지 투쟁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제주 민중이 이루어낸 항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제주 민중의 무장 정도가 전체적으로 겨우 총 50자루 정도였던 열악한 상황에 비해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미군정의 대대적이고, 무자비한 토벌작전이 감행되었기 때문에 제주 민중이 대항하기에는 중과부족이었다. 또한 미군의 조정과 지원을 받은 이승만 정권은 단독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토벌 작전과 함께 양민학살을 감행하여 제주도는 피와 통곡으로 물들게 되었다. 4·3항쟁 발생 1여년 만에 대다수 마을이 초토화되었고, 살상된 양민만도 전체 도민 30만 명중 약 3-8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항쟁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토벌과 학살작전(1953년까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실시, 예비검속과 연좌제, 6·25전쟁으로 인한 전쟁투입과 전쟁수행, 제주 사회의 자생력 파괴와 문화의 왜곡, 사면과 선무작전들, 생존의 어려움

과 공포의 일상화로 많은 고통을 제주도민들에게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는 초토화되었고 민중은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다. 삼다(돌, 바람, 가뭄 : 제주도의 자연 환경이 척박함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 역주)의 섬 제주도가 항쟁에 대응하는 정권의 무자비한 대학살로 인하여 통곡의 삼다도(주검, 학살, 많은 눈물)로 변모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주도자체를 분해시켜 버리고 역사와 정신마저 잠들게 했다. 그리고 제주 사회에 치유되기 어려운 집단적 피해의식을 심어놓았다. 도민에게 항쟁의 이상은 지워져 버렸다. 그들은 벼랑같은 생존의 길을 찾아 부산으로 일본으로 탈출하거나 군인으로 나서게”¹⁷²⁾되었다.

(3) 4·3의 역사의 해석

4·3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너무나 상이하게 나타나 있다. 그 이유는 4·3이 역사의 표면으로 드러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반세기가 흘렀기 때문일 수 있으며,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있는 정부의 행위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4·3항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떠했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4·3을 폭동으로 보는 관점¹⁷³⁾

이 관점은 4·3을 제주도 남로당원들이 중앙의 지령에 따라 제주도민을 선동하여 미군정의 국가권력을 전복시키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으로 보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은 ① 4·3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한편 사회주의 제재는 용납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논

172) 고창훈, “4·3과 5·18의 만남”, 「반인륜 행위와 청산: 한국현대사의 반인륜행위」, 광주: 시민연대모임, 1995, 21 참조.

17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967 ;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1973. 참조.

리를 전개하고 있고, ② 유격대와 도민들과의 역동적 관계를 도식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쳤고, ③ 미군정에 대한 분석이 소홀하고, ④ 제주의 특수한 여건만 강조하여 4·3이 갖는 전체적 의미의 성격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민 다수가 빨갱이, 폭도로 되어버리는 등 4·3을 너무 편파적으로 왜곡시켜 버린 면이 있다.

② 4·3을 반란으로 보는 관점

메릴은 “4·3은 제주도민의 자발적 민중봉기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두 개의 한국 정부간의 직접적인 해계모니 다툼으로 발전된 「반란」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그는 4·3은 하나의 조직적이고 독립적인 빨치산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면서, 좌익의 반란과 그에 대한 우익의 탄압이라는 등식”¹⁷⁴⁾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메릴의 주장은 ① 4·3의 성격을 좌, 우간의 대결로 압축시킨 결과, 제주도민은 사건의 주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는 한계를 드러냈고, ② 점령군으로 한국에 진주했던 미군정의 역할, 즉 미국의 개입문제를 한정, 축소시켜 버리는 한계”¹⁷⁵⁾를 드러낸다.

③ 4·3을 민중수난사로 보는 관점¹⁷⁶⁾

4·3을 변혁기에 일어난 하나의 불행한 역사로 인식하여 그 사태의 성격과 진실성 이전에 그 사태 자체에 좀 더 애정을 갖고 대하고자 한다. 또한 4·3을 비극적인 사태로 보면서 피해자인 제주도민의 한(恨)에 깊은 이해와 고통스러

174) John Meril, 「The Chejudo Rebellion」, 1980 이 글은 미국 국립문서 보관소에서 기밀 해제된 주한 미군정 관계 문서 - 주로 주한 미군사령부 정보 참모부(G-2)의 정기보고서 - 등을 폭넓게 이용하여 쓴 학술 논문으로서 최초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175) 「한겨레신문」 1998년 8월 4일, 4면.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등 진보적 학자들은 1948년 8월 24일 한미 사이에 맺어진 ‘한미 군사안전 잠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초토화작전에 따른 양민학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76) 이는 학문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제주도민들의 정서라 할 수 있다.

운 인식의 공감대를 갖자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① 4·3이 갖는 전체적 의미와 성격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② 4·3을 역사발전의 선상에서 이탈하여 버린 수난의 역사,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④ 4·3을 항쟁으로 보는 관점¹⁷⁷⁾

(가) 제국주의에 대한 민중항쟁

4·3을 미군정의 침탈에 대한 방어적 항쟁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연구는 유격대에 가담했던 도민들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나) 좌익주동의 무장투쟁

4·3을 남한만의 단산·단정반대를 통해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고자 제주도 민들이 참여했던 「민중항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연구에도 한계는 있다. ① 민중항쟁이라고 하면 제주도 민중이 항쟁의 주체인데 항쟁지도부와 민중들 간의 주체 설정이 명확하지 않고, ② 민중들이 항쟁에 가담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5·10 단선 저지를 통한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도민들을 흡입시켰다고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앞서 다양한 역사의 해석을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4·3은 해방전후의 복잡한 한국 현대사안에서 단순한 원인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유들이 이 안에 복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¹⁷⁸⁾ 단순논리가 아닌 모든 것을 살펴야 할 것이다.

177)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1988; 박명립,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1988; 고창훈, 「4·3민중 항쟁의 전개와 성격」, 1989;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1993; 양정심, 「제주 4·3 항쟁에 관한 연구 -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1995 등 참조

178) 4·3을 구조적인 전체 맥락에서 보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에 치우쳐 해석하려 한다면, 이념문제를 둘러싸고 도민끼리 싸움을 했다는 단순논리에 함몰할 위험이 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주도민들은 희생자였다’는 인식과 포용이 필요하다.

(4) 4·3의 성격¹⁷⁹⁾

4·3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항한 제주 민중의 ‘반미 자주화 민족 해방 투쟁’이다. 당시 미국은 제3세계 나라 민중의 변혁 의지를 철저히 분쇄하는 식민지화 전략을 수립하고 그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친미 정권을 수립코자 하였으며, 따라서 제주도에서의 4·3을 동아시아서의 미국의 전략으로 최초로 실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즉 4·3은 오히려 미국이 먼저 민중을 유도하여 민중이 일어서면 되받아 치는 작전으로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하나의 식민지 민중 공격전이었다. 그러므로 미국의 민중 공격에 대항해 일어난 것이 제주도민의 4·3인 것이지, 제주도 민중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갱이가 되어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닌 것이다. 또한 일제에의 해방 후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국이 자국의 이해만을 염두에 두고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 독립에의 이상을 철저히 말살해 버렸을 때,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주의의 지배를 극복하고 독자적인 역량을 키워 나가려는 민족 자주 실현은 시급한 것이었다. 이는 1947년의 3·1사건이 3·1민족 해방운동의 민족 자주 사상을 이어 받은 것이었듯이 4·3은 민족 자주의 이상을 간직한 것이었다.

둘째, 4·3은 미국에 충실한 폭압적인 이승만 정권과 극우 단체의 테러와 학정에 대항한 제주 민중의 생존권 쟁취 투쟁인 것이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제주도민 모두를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며, 수많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극우 테러 만행에 대해 살기 위하여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무참한 학살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179) 제주교구신학생회, 「4·3 제주 민주 항쟁 50주년 - 해방 선포의 해 : 제주희년」, 광주가톨릭대학교, 1998.

가야 할 길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매국적 단선, 단정을 반대하여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조국 통일 운동이다. 오랜 외세에 대한 시련과 자주독립 민족 단일국가 건설을 희망하는 제주 민중의 염원은 5·10단선 반대로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미군정과 단정 세력에 맞섰던 제주 민중들의 통일에의 열망은 지금도 유효하다.

넷째, 외세의 착취와 침탈이 없는 지역 자치를 이루려는 민중들의 간절한 바램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치안 유지, 적산(敵産) 관리, 행정 기능의 수행은 아래로부터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의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고, 민중들의 뜻을 올바르게 수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진정한 지역 자치의 의미를 바로 하고, 그 역사적 사례를 재exam하며, 내일의 올바른 지역 자치의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항쟁을 통해 민중들은 민족 자주와 통일 독립에의 열망을 철저히 말살해 버렸을 때,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 테러를 자행했을 때, 제주 민중들은 제국주의의 지배와 탄압을 극복하고 통일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것이다.

다섯째, 더 이상 ‘국가에 의한’ 범죄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4·3의 현재적 의미를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되살린 것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이루려는 4·3이 33년의 시간을 넘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만난다. 전자가 해방 공간에서 분단 저지의 통일 운동과 외세 추방의 자주 항쟁이었고, 미군정에 의한 조국의 분단 하에서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거부한 것이라면, 후자는 분단 고착화 후에 분단 극복의 민주화와 외세 극복의 자주 항쟁으로서, 미국의 간접적 개입에 의해 유지되는 5공화국의 정통성을 거부한 것이다. 미국과 군사 정권이 두 항쟁 모두를 좌·우의 대결로 몰고 가는 논리나 이북 출신의 서북 청년단과 제주도,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 싸움으로 두 항쟁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기도 하다. 4·3은 광주

민주화 운동 이상의 엄청난 규모와 전율할 잔인성, 범죄적인 비도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을 의심할 정도로 참혹했다. 그리고 지난 50년 간 제주는 4·3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2) 4·3에서 나타나는 수용적 한(恨)¹⁸⁰⁾

제주 민중은 1947년 3·1절 행사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죽음에 내몰렸었다. 그 후 6년 6개월 간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던 반면 강력한 힘에 쓰러져 일어설 힘조차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기나긴 기간 동안 제주 민중들에게 있어서 4·3은 씻을 수 없는 한(恨)으로 맺히게 되었다. 사건 당시 이 한(恨)은 제주 민중에게 있어서 체념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변혁적 저항 의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건의 종결 후 4·3항쟁이 역사의 보이지 않는 바닥에 묻혀 왔던 반세기는 제주 민중에게 있어서 체념적 한(恨)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4·3에 대하여 사회적인 문제 거리로 꺼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자들의 보이지 않는 탄압¹⁸¹⁾이 꾸준히

180) 김성례, “제주 무속: 폭력의 역사적 담론”, 『종교신학연구』 제4권, (서울: 서강대학교 종교신학 연구소, 1991), 9-28

181) 한 예를 들자면 “1993년 百祖一孫之地 위령비 건립을 두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국가의 ‘용서와 화합’의 언어로 포장한 망각의 각본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리석으로 된 위령비 건립은 도정부의 지원으로 가능하였고 위령제에는 피해자 유족들보다는 도의회와 ‘4·3 유족회’ 두 기관의 대표가 주요 건립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추도의례의 주객이 전도된 사정의 배후에는 뼈아픈 이야기가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국적으로 예비검속이 실시되면서 대정읍 상모리 주민 132명이 좌익분자 혐의를 받고 음력 7월 7일 석알오름에서 집단 학살되었으나 그 사실은 1957년 우연히 유해가 표출되기까지 6년 8개월 간 학살 터에 대한 민간인의 출입통제 때문에 은폐되었다. 유족이 유해를 발굴했을 때 시신은 구별할 수 없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한데 모아 다시 132개로 나누어 애기 무덤만한 조그만 봉분을 쌓고 공동묘지를 조성한 것이 ‘백조일손지지’(‘조상은 일백 서른둘이요 자손은 하나이다’라는 뜻)이다. 1960년 민간정부가 잠시 들었을 때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961년 군사정권의 강요에 의해 묘비가 철거되고 분묘이장이 강요되었다. 그 후에는 매년 칠월 칠석에 유족들이 부분적으로 참배를 하는 정도의 추모행사도 억압되었다. 1989년 백조일손지지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고 추모비 복원이 거론되다가 1993년 7월 백조일손 유족회가 창립되어 도비 900만원 지원과 유족의 성금으로 그 해 8월 24일 처음으로 위령비가 건립되었고 그때부터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탄압 받지 않는 공식적 위령제를 시행할 수 있었다 ; 제주도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 <백조일손영령 제3회 합동위령제>, 1995년 8월 3일. 이 팸플렛

제주 사회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 민중의 화해와 용서를 바라는 마음은 서서히 체념적이고 비애의 응어리로만 남아 있던 한(恨)을 밖으로 표출하게 만들었다.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제주도에서 신고 받은 희생자 수는 “2001년 5월 14,028명으로 이중 여성 희생자는 2,985명으로 21.3%를 차지하고 10세 이하 어린이와 61세 이상 노약자가 1,647명이 희생되어 11.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20세 이하의 청소년(3,026명, 21.6%)과 당시 손자손녀를 봤을 50대 희생자(899명, 6.4%)까지 합하면 희생자의 50% 남짓 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이거나 노약자와 여성이다. 또한 강경 진압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¹⁸²⁾ 없어졌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계속적인 피해 조사로 인해 희생자 및 피해상황은 더욱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통계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恨)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4·3으로 인한 공동체의 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체험한 바를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인 무속의 “영계올림”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4·3내력곳”이라 하여 4·3과 특별히 관련된 곳을 지칭하는 말이 있을 만큼 제주의 곳과 역사적 사건의 체험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조심방이야기>¹⁸³⁾

은 위령제의 주관단체가 4·3유족회임을 명시하고 있다.

182) 대표적인 주민 집단 총살사건인 ‘북촌사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 마을 주민 400명 가량이 2연대 군인들에 총살당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 제주교구 신학생회, “진실과 화해”, 「55주기 제주 4·3 민주항쟁」, 2003 참조.

183) 제주심방 미조의 구술을 살펴보면,

4.3사건 때는 사람들이 무근풀(잡초) 베어가듯이 죄 없이 죽어갔지요. 만일 4.3사건 때 남의 손에 칼맞아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이 김씨이면,

“어느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 몇 살까지 살다, 시집가 살다가 무진년 4.3 사태는 당하고 나니 아침에 본 사람 저녁에 못보고 저녁에 본 사람 아침에 못보고 무근풀 (잡초) 베어가듯이 그 날 아침밥을 저승 밥으로 먹어 그 날 운수 못 피어나서 저승 갈 적에 부모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어

조사당시 25세 되는 미조 심방으로부터 들은 환자굿 이야기이다. 환자는 39세로 남자로 신제주 관광거리에서 나이트클럽 가수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환자고모가 미조 심방을 찾아왔었다. 그 전날 심방은 꿈을 꾸었는데 꿈에 흰옷을 입은 젊은 부부가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입과 가슴은 칼에 찔려 피가 막 솟구치는 것이었다. 바로 그 다음날 새벽 환자고모가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조카가 병원에서 병명을 모른다 하고 폐병같이 말라가고 정신이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한 증세로 아프니 뚝제를 해서 급하게 그 증세를 가라앉혀 달라고 사정했다. 미조 심방은 이번 경우와 같이 굿해달라는 부탁을 받기 전날, 말을 환자의 “조상” 영혼이 나타나 문제를 암시해주는 꿈을 곧잘 꾸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지난 밤 꿈 얘기를 환자고모에게 했다. 고모는 흠칫 놀라며 환자의 부모가 “시국”에 폭도로부터 죽창과 총으로 맞아 죽었다고 말했다. 미조 심방은 뚝제대신 그 영혼들을 위

린 얘기 치마 끝에 달아다니는 얘기 의지할 데 없이 놔두고 그렇게 저승에 가니 이때까지 저승에서도 한이 맺히고 이승에선 이 얘기가 크면서 얼마나 고생할까 어명이 없으니까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며 남과 같이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할망 젓가슴에서 커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뉴월 영창에 물기리면 물이나 먹어 가슴을 잔지르건만 어명 보고 싶은 마음이야 어디 갇니까 천년이나 본들 어명 얼굴을 잊으라 만년이나 본들 어명 얼굴을 잊으라”

*이런 식으로 심방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딸이 어명 울어 굿을 했을 경우, 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명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니 누가 돈을 주어 살고 누가 밥을 주어 먹어 살았니 이제까지 어명이 없어서 고생했으나 이제는 돈 벌어 집도 사고 시집가서 얘기도 나 살다보니 어명 생각이 나서 너의 집에서 굿한다 해서 올려고 하니 담이 높아 어떻게 올까 어느 때나 이 얘기 만나 이 말을 다 풀어놓고 저승에 갈까”

*그 영혼하고 딸이 계속 한 맺힌 말을 계속 주고받는 거지요
(심방) 자신 혼자 굿하면서.*

나 혼자서 영혼의 한도 풀어주고

굿을 하는 딸의 한도 풀어줘야 하는 거지요. (1993년 11월 현지조사 인터뷰: 김성례, 1991, “제주 무속: 폭력의 역사적 담론,” 종교 신학연구 4집, 서강대 종교신학연구소.)

로하는 “짐칠”의 곳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그래서 그 날 오후 즉시 큰곳을 했다. 명부를 관할하는 시왕에게 청하여 이승과 저승사이 허공에서 떠돌고 있는 환자 부모의 영혼들을 저승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도록 길을 닦는 곳을 했다. 두 영혼이 “영계울림” 재차에서 심방의 입을 빌어 환자인 아들에게 그 “시국”에 억울하게 죽은 자신들의 한과 슬픔을 이야기할 때는, 병원에서 환자도 잠시 나와 듣고 많이 울었다. 이 곳을 한 다음 환자는 완전히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그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한다. 이 환자국은 미조 심방이 신곳을 치른 이후 첫 번째 맞은 큰곳이었다.

조상 영혼의 “울음”은 왜 자손에게 해가 될 만큼 위협적일까? 끊임없이 이승으로 돌아와 위로와 정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죽은 영혼의 통곡과 산 자에게 끊임없이 자신들을 기억하도록 요구하는 그 끈질김은 그들의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죽음”에서 연유할 뿐 아니라, 그들 조상 영혼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양식에도 이유가 있다. 원혼의 이야기는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이 불러일으키는 폭력과 공포의 분위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자체가 반사회적이며 터부시 당하며, 무속의 곳과 같이 특별한 장소와 때에 한하여 그 이야기의 전모가 밝혀지는 “주변적 성격”¹⁸⁴⁾을 가진다.

4.3때 죽은 원혼들이 자손에게 들려주는 영계울림은 다른 이야기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힘이 있다. 그것은 그 원혼들의 죽음의 무고함에 기인한다. 심방은 그들의 무고함을 비호해

184) 이 주변적 성격은 원혼의 이야기가 주로 가부장제 친족집단의 주변적인 범주인 여성, 즉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로 이어지는 비공식적 채널을 통하여 마치 민담이나 전설처럼 구비-기억(oral memory)의 형식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심방이 집안 여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원혼의 이야기들을 자료로 하여 의례적 서사로 재구성하는 영계울림은 원혼의 비극적 이야기를 공표함으로써 원혼의 죽음과 관련된 폭력과 공포의 역사를 회복하는 민중기억의 주도적 형식이 된다.

주며 그 사실을 정당화한다. 특히 양민학살에 대한 함구를 강요하는 반공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4·3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며, 또한 당시 상황을 버리에 되살리는 것 자체도 공포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다. 공식적 현대사에서 사건 자체를 거의 지워 버리고자 했던 국가권력의 그늘 아래서, 4·3사건의 상황과 그 비극의 결과를 재구성하는 것은 바로 반국가적이기 때문에 그 비극성이 더 가중되는 것이다.

한편 4·3을 민중기억과 함께 살아있게 하는 무속의례는 4·3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정치체계에 대하여 비판적인 저항의 힘을 내재하고 있다. 미조의 경우처럼 4·3때 죽은 원혼들이 심방과 자손의 꿈에 나타나고, 자신들의 죽음 이야기를(심방의 입을 빌려) 들려주는 무속의 곳 의례는 4·3에 대한 강요된 망각을 거스르며 투쟁하는 민중기억의 실천인 것이다.

그러기에 제주의 무속은 개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기제라기보다는 4·3으로 압축되는 공식적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속은 4·3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새로 수립된 국가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이념으로 고착되고 현재까지 지속된 현대사의 맥락에서 창출된, 민중적 대응 권력의 전략효과를 지닌다. 미조 심방의 꿈에서처럼 산 자가 침묵해야 할 때 죽은 자의 말은 안전하다. 또 이는 무속을 통해 과거의 공포를 재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4·3의 진실을 천명해야 한다는 위급함을 되살린다. 즉 4·3의 희생자들의 무고함을 밝히고 그들의 생존자들의 고통을 노출하여 치유하는데 있다. 과거 역사적 폭력에 대한 현재적 해석이다. 하지만 무속 곳에서 심방은 4·3에 관한 명료한 지식을 제시하지 않고 의미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러나 민중의 창조적 능력은 4·3의 비극과 폭력성을 극복하려는 투쟁적 의지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치유의 가능성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신념에서 드러난다. 원혼의 피 묻은 옷이 정화되어 저승이라는 좋은 곳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는 유토피아는 환상적 실재이지만 환자의 답답

한 가슴이 풀리는 현실적 신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무속으로써 4.3으로 인해 맺힌 한(恨),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풀리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민족사에서 가장 큰 비극인 4.3으로 인해 생긴 한(恨)은 어떻게 해야 풀릴 것인가. 이에 대한 물음은 한(恨)이 맺히게 되었던 당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질 때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이념으로 고착되어 왔던 반세기 제주 민중의 한(恨)은 체념적으로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4.3으로 인한 제주 민중의 한(恨)은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 1978년 「창작과 비평」에 실리고 난 후 서서히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제주민중에게 있어서 4.3은 30년 이상 체념할 수밖에 없는 한(恨)으로 감춰져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1988년 이후부터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제주민중들의 간절한 호소와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제주도의회에 4.3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1999년 4.3 위령사업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결성됨으로 본격적인 4.3 진실 찾기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4.3관련 영상 다큐멘터리는 제주도 내·외적으로 4.3을 알리는데 한몫을 하게 된다. 2002년도엔 드디어 제주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3월29일 제주4.3사건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역사적으로 더욱 중요한 사건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제주 4.3사건과 관련,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 차원의 사과를 표명했다는 데 있다. 이 정부의 공식사과는 2000년 여야합의로 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4.3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지난 10월 15일 진상보고서를 최종 확정하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정부차원의 사과를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전 정권의 잘못이라고 묻어두어야 하는 것은 결코 바른 방향이 아니다. 분명 반세기 이상 제주 민중들의 신상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을 현 정부가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 이는 결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겉치레 유감 표시와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유족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물론 제주 민중 전체의 피해 의식을 걷어내어 역사적 진실성과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한(恨)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한(恨)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4·3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대로 결코 어떠한 폭력적인 것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 민중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4·3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한(恨 : 화해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억압되어 있던 상태)의 해방의 시작이다. 화해하고 용서하여 더 이상 한(恨)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려는 제주 민중의 염원에 의한 해방인 것이다. 결국 4·3을 통하여 제주 민중은 좌절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한(恨)의 해방을 노래하게 되었다. 이는 4·3의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바라본 제주 민중의 한(恨)스런 상황이 단순한 체념적 포기 상태가 아니라 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가해자를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의 승화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 정권은 제주 4·3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하여 제주 민중은 사사로이 따지지 않을 것이며, 현 정권의 노력에 대하여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 낼 것이다. 이는 4·3을 통하여 맺혀진 제주 민중의 한(恨)이 풀리는¹⁸⁵⁾ 시작이면서 동시에 한

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場)으로 말해질 수 있다.

185) 분명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만을 보았을 때, 한(恨)이 해방되기 위한 화해와 용서가 드러나는 지 제주 도민의 마음을 알 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에는 재심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4·3특별법의 제정을 위하여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가 내놓은 ‘제주 4·3 피해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어디에도 재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을 살펴볼 때,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제주 도민 염원을 확인할 수 있다 : 부상일, “재심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4·3과 역사」, 2001년 창간호, 165.

결론

교회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향하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모든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 역시 하느님의 피조물이며, 구원자이시며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인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신학의 범위를 세상의 모든 학문으로 확장시키고, 모든 인간에 대한 관심을 신학¹⁸⁶⁾의 주제로 삼는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¹⁸⁷⁾라고 말하고 있다. 즉 세상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관심사로써 신학의 주된 관심 분야는 단연코 한(恨)이라 할 수 있다. 한(恨)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인의 기본적인 심성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역사에서 한(恨)의 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것에서 진정한 한(恨)의 해방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기에 더욱더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恨)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조화롭지 못하고 하나로 일치되지 못

186) 신학은 신과 관련된 인간을 다룬 학문으로 신학은 인간학이다. 따라서 인간은 무엇이며 인간 존재의 근거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해 내는 작업뿐 아니라, 인간 삶의 비극성과 고통 등 인간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과 사건을 해명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실존 상황뿐 아니라 인간이 처한 사회적 역사적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간은 실천적 상황과 구체적인 사회적 역사적 지역적 상황에 존재하기에 그에 맞는 신학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역사도 이에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다.

187) 사목현장 1항.

하는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다. 이는 제주 역사를 바탕으로 민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소위 힘있는 자들의 횡포에서 비롯된다고 보아도 될 듯 보인다. 그렇다면 한(恨)의 해방을 위해서 교회는 역사 안에서 구조적 모순을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의 사회 참여가 월권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겨 주신 고유한 사명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질서에 관한 것”¹⁸⁸⁾이라 하면서도 “인간들의 개인적 내지 사회적 소명에 교회는 봉사해야 한다”¹⁸⁹⁾는 측면에서 “오늘의 강력한 사회운동에 있어서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특히 일치의 진보, 건전한 사회화, 사회적 내지 경제적 연대의식의 진전 등이 모두 자신의 사명¹⁹⁰⁾임을 인정하고 있다. 교회의 사회 참여는 교회의 사명을 달성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회 참여는 한(恨)을 발생시키는 “기아, 질병, 문맹, 빈곤, 국제 간의 부정 특히 무역상의 부정, 과거 정치적 식민주의의 잔혹과 같은 경제적 문화적 신식민주의 등에 대하여 전력을 다하여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해야 한다. 교회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해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고, 해방을 위해 증거해 주며, 또 성취하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¹⁹¹⁾을 인식하고 민중에게 맺힌 한(恨)의 해방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용서와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회의 이러한 가르침에 동참해야 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188) 사목헌장 42항.

189) 사목헌장 76항.

190) 사목헌장, 42항.

191) 현대의 복음 선교 30항.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완성해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적어도 한 분야에 자신의 생활환경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단체로나 시민으로서 행동함에 있어서 다른 시민들과 함께 각자의 능력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여”¹⁹²⁾ 한(恨)의 해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恨)맺힌 현실에 대하여 “인간이 바로 경제, 사회생활 전체의 건설자요 중심이며 목적인 한 그 경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인간 존엄성과 전 사회의 공동선은 존중되고 촉진되어야 하므로”¹⁹³⁾ 모든 이들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역사의 중심에서 한(恨)을 바라보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와 민족에 무관심한 교회는 결코 복음화 될 수 없다. 그러한 마음으로 민중들에게 맺히는 한(恨)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역사의 질문과 앞으로 발생할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인지를 성 아오스딩의 말씀을 통하여 대신하고자 한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너는 나에게서 경고하는 말을 받거든 그대로 일러 주어라. 내가 한 죄인에게 ‘너는 사형이다.’ 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네가 그 죄인에게 버릇을 고치라고 타일러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죄인은 자기 짓값으로 죽겠지만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을 나는 너에게 지우리라. 그러나 네가 그 죄인에게 마음을 바로잡아 버릇을 고치라고 타일러 주었는데도 그가 마음을 바로잡아 고치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짓값으로 죽겠지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이여,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인은 당연히 죽습니다. 자신의 죄과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의 게으름이 그를 죽이는

192) 평신도 교령, 7항.

193) 사목현장 63항.

것입니다. 그는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목자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보초와 지도자로 임명된 사람에게서 아무런 경고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응당히 죽겠지만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던 사람도 응당히 단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께서 그를 칼로써 위협하실 때 당신이 그 죄인보고 “당신은 분명히 죽을 것이요.”하고 말해 주어도 그 죄인이 자기 머리 위에서 위협하고 있는 칼을 피하는데 소홀히 한다면, 그 칼은 떨어져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때 그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것이지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는 침묵을 지키지 않는 일입니다.¹⁹⁴⁾

194) 성 아우구스티노, “목자들에 대한 강론”, 「성무일도 4권」, 282-283참조: Sermo 46,20-21: CCL 41, 546-548.

<참 고 문 헌>

I. 교회공식문헌

-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현대 세계의 사목 헌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1997.
- 2) _____.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_____. ____.
- 3) 교황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선교: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권고 (1975)」. 이종홍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II. 사전류

- 1) 김민수 외 3.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 2) 동서문화. 「세계 대백과 사전 10」. 동서문화. 1995.
- 3) _____. 「세계 대백과 사전 29」. _____. ____.

III. 단행본

- 1) A, 프란쾰. 「교회사」. 분도출판사. 1990.
- 2) J, Houbie. 「가톨릭 사상사」. 강성위 역. 1965.
- 3) 강장일. 「1901년 제주도민 항쟁에 관하여」. 제주도사연구소. 1991.
- 4) 고창훈. “4·3과 5·18의 만남”. 「반인륜 행위와 청산: 한국현대사의 반인륜 행위」. 광주시민연대모임. 1995.
- 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967
- 6)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 7) 김봉현. 「제주도 역사지」. 교문사. 1960.
- 8) 김상일 편. 「한사상의 이론과 실제」. 지식산업사. 1990.
- 9) 김열규. 「한맥원류」. 주우. 1981.

- 10) 김옥희. 「제주도 신축년교난사」. 천주교 제주교구. 태화출판사. 1980.
- 11)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1973.
- 12) 김정준. “한의 신학”. 「한국과 신학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83.
- 13) 김지하. “풍자냐 자살이냐”.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 동광출판사. 1984.
- 15) 김태능. 「제주도 史論」. 세기문화사. 1982.
- 16) 노길명. “가톨릭과 한국 사회 발전”. 「한국 사회와 가톨릭시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3.
- 17) _____. “개화기의 한국 가톨릭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가톨릭과 조선 후기 사회활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8.
- 18) 박용후. 「제주도지」. 백영사. 1976.
- 19) 뿌리깊은 나무. 「제주도; 한국의 발견」. 브리टे니커. 1983.
- 20) 서광선 편. “한의 이야기와 사제적 실천”. 「한의 이야기」. 보리. 1987.
- 21)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한길사. 1983.
- 22) 유홍렬. 「한국천주교회사」. 가톨릭출판사. 1962.
- 23) 이기백. 「한국사신론(신개정판)」. 일조각. 1991.
- 24) 이원순. 「한국천주교회사 下」. 탐구당. 1970.
- 25)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1985.
- 26) 제베데이 바르부. 「역사심리학」. 임철규 역. 창비. 1983.
- 27) 제주도 문화 공보담당관실 편. 「제주도지」. 1982.
- 28) 제주역사연구회 편. 「제주인의 삶」. 제주역사연구회. 1989.
- 29) 최길성. 「한국인의 한」. 예진. 1991.
- 30) 최석우. 「한국 교회사의 연구Ⅱ」.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 31) 한국신학연구소 편. 「한국 민중론」. 한국신학연구소. 1986.
- 32) 한국정치연구회. 「한국 정치사」. 백산. 1990.
- 33)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7.
- 34) 홍순만. “천주교란”. 「제주도지 上권」. 1983.
- 35) 황상익. “의학사적 측면에서 본 ‘4·3’”. 「4·3과 역사」. 제주4·3연구소. 1998.

IV. 논문류

- 1)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1989.
- 2) 김옥희. 「제주도 신축년(1901) 교난의 원인」.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제 9권. 1980.
- 3)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1993.
- 4) 박명림.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1988.
- 5) 박찬식. 「한말 천주교회와 향촌 사회」.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5.
- 6) 양정심. 「제주 4·3항쟁에 관한 연구 -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1995.
- 7)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1988.
- 8) 최상진. 「한(恨)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2003.
- 9) 현문권. 「濟州의 恨에 대한 神學的 考察」. 광주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1997.

V. 신문·잡지류

- 1) 「한겨레신문」. 1998년 8월 4일. 4면.
- 2) 고 은. “이 땅에서 한은 무엇인가”. 「계간사상」. 사회과학원. 1990.
- 3) 공보관실. 「제주도」. 통권 99호. 1996.
- 4) 김 진. “무속신앙과 한의 신학”. 「신학사상」. 67호. 1989.
- 5) 김성례. “제주 무속: 폭력의 역사적 담론”. 「종교신학연구」. 제4권. 서강대학교 종교신학 연구소. 1991.
- 6) 김옥희.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 전개과정”. 「탐라문화」. 제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 7) 김인제. “제주의 신축년 천주교 교란”. 「제주도」. 제30호. 1967.

- 8) 명동천주교회, 「서울교구연보 I」. 1984.
- 9) 이정훈. “제주 임오 성교란에 관한 연구”. 「제주도 연구회」. 제5집. 1988.
- 10) 이호영. “정신분석학자가 진단한 한국인의 성향”. 「계간사상」. 사회과학원. 1990.
- 11) 제주 4·3연구소. 「4·3과 역사」. 2001 창간호.
- 12) 제주교구신학생회. “진실과 화해”. 「55주기 제주4·3민주항쟁」. 2003.
- 13) 제주교구신학생회. 「4·3 제주 민주항쟁 50주년 - 해방 선포의 해 : 제주희년」. 1998.
- 14) 제주교구신학생회. 「사삼 사태로 반 죽었어, 반」. 광주가톨릭대학교. 1996.
- 15) 제주도사 연구회. 「제주도 연구 창간호」. 1991.
- 16) 조성윤. “제주도 근대사회운동의 재조명”. 「한라산」. 29호. 제주대학교교지편집부.
- 17) 조정래. “한의 본질”. 「월간문학」. 195호. 1982.
- 18) 최선흥. “제주도의 학살사건과 본당연력”. 「가톨릭 연구」. 9-10월 합병호. 1935.
- 19) 한국교회사 연구소. “제주 본당의 초창기”. 「교회와 역사」. 합본 1집. 1983.
- 20) 한승원. “한의 극복의지”. 「월간문학」. 165호. 1983.

VI. 기타

- 1) 제주도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 「백조일손영령 제3회 합동위령제」. 1995년 8월 3일 팜플렛.

<국문초록>

濟州 歷史에서 드러나는 恨의 意味

홍 석 윤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지 도 교 수

이 덕 근

恨은 한국인의 기본적인 정서이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한의 정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 한은 깊은 고난의 현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는 한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교회 안에 신학의 토착화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은 대중들의 고난의 현실이거나 해방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기존의 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한다. 즉 한(恨)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갖게 되는 응어리, 혹은 체념적인 마음의 상태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부조리한 현실에서 해방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써 한(恨)이 표출되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한(恨)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정의했기에 명확한 한(恨)의 의미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의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본인은 제주도의 역사를 통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인이 제주의 역사를 선택한 이유는 제주의 역사가 한국 역사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 마치 ‘맺히고,’ ‘쥘이’는 것과 같다. 따라서 만약 이것이 역사의 복잡성과 연결된다면 한의 정확한 의미에 접근해 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전쟁

으로 나라가 갈리기도 하고 통일되기도 하는 혼란 속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던 제주도는 한의 의미에 대해 접근하는데 적합하다.

한의 표현형태에 따라 분류해 보면, 제주의 역사는 ‘체념적 한 시기,’ ‘현실 변혁적 한 시기,’ ‘수용적 한 시기’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체념적 한(恨) 시기는 고려사를 시작으로 하여 조선 전·중기까지를 설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민중의 자아의식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항하지도 못했던 민중의 약함으로 인해 드러나는 비애의 응어리로써 한(恨)은 자리하고 있었다.

현실 변혁적 한(恨) 시기는 조선 후기 민란을 시작으로 하여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까지를 설정하였다. 이 시기는 자아의식의 성장과 함께 조직적인 저항의식의 발전으로 인하여 한(恨)땀힌 것을 풀고자 하였다. 이러한 저항의식은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해 강한 방식으로 대결한다. 이처럼 한(恨)은 민중의 저항의식의 성장과 공동체성에 대한 의식 성장으로 표출되는 현실 변혁적 의지로 보여 진다.

수용적 한(恨) 시기는 20세기 가장 비극적이라 할 수 있는 4·3항쟁과 그 후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4·3의 쓰라린 상처에도 불구하고 제주 민중의 마음은 한결같다. 바로 비애의 응어리로 가지고 있는 한(恨)에 대해 밝히고 인정받는 것이다. 나아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4·3을 과거의 반인륜적인 역사의 오류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제주 민중의 한(恨)의 해방은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제주 민중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 제주 역사를 통해 살펴볼 때, 한(恨)이란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화해와 용서는 한(恨)의 완전한 해방을 가져오며 기존의 한(恨)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노력에 대한 종결을 가져오게 해준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한 화해와 용서는 어렵다. 아니 화해와

용서를 위해 길을 찾는 그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한(恨)의 해방을 위하여 길을 제시하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이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할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로 모든 이를 이끌어야 하는 교회는 안내자의 위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중의 가슴속에 맺혀진 한(恨) 속에 뛰어들어 민중의 가슴에 새겨진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교회는 읽어야 한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Abstract>

The meaning of the 'Han' that was exposed
through the history of the Jeju Island

Hong, Seok-yun

Department of Theology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Kwangju, Korea

Under the Direction of professor

Lee, Doeg-Guen

The Han is the basic emotion of the Korean people. A community as well as an individual can have the emotion of the Han, and so it makes the reality of deep suffering. So we make to clear the meaning of the Han, because that is to prepare for the Theological settling in the Korean Church.

The author didn't deny to the former scholars opinion(the Han is expressed of 'the reality of people's suffering' and also 'the power of pursues liberations'). In other words, I don't doubt that the Han is an unpleasant feeling that someone can have in unreasonable reality or a hopeless state of mind. Moreover I don't deny the Han is expressed as a dynamic power which releases one from the reality of an irrationality. But that kind of approach has a difficulty to clear the meaning of the Han, because that is defining by the person's activity in the emotion of the Han. So that to find out the exact meaning of the Han, I tried to made an approach through the history of the Jeju-do.

The reason, why I choice the history of the Jeju-do, because

that was not central part of the Korean history. The Han is just like 'pent up' and 'piled up', so if it was connected with the complexity of a history, this will be too hard to access the meaning of the Han. Therefore Jeju-do which has existed independently in the chaos of unification and spilt of a country in lots of warfare is relevant to an access to the meaning of the Han.

Sorted by the form of expression of the Han, the history of Jeju-do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rsaken Han period', 'the reality-revolutionizing Han period', 'the acceptable Han period'.

The forsaken Han period is the time from the Goryeo era to the early and middle days in the Joseon era. During this time, the Han was placed as an unpleasant feeling of sorrow which is come out owing to the people's weakness who hadn't been able to resist on the insufficient self-consciousness conditions.

The reality-revolutionizing Han period is the time from a popular uprising in the late Joseon era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era occupied by Japan imperialism. In this period the people wanted to vent their Han through the growth of organized resistance-consciousness.

This resistance-consciousness is against strongly about the irregularities of a reality. In this way, the Han is appeared as the power of the reality-revolutionizing that is caused by the growth of people's resistance-consciousness and community spirit.

The acceptable Han period shall be considered with the 4·3 contention that is called the most tragic affair in the 20th century and with the process inquire into the real state of affair. Although the 4·3 contention that is a painful legacy,

people's mind of Jeju-do is consistent. That is the government should be official recognition about the Han from the 4·3 contention. In addition, for the change the present reality, the people of Jeju-do went to correct that the mistake of history about the 4·3 contention. Through this process, the people of Jeju-do released from the Han that is built by the mind of antagonism and irreconcilability.

In the final analysis, the Han can be defined as an irreconcilable and unpardonable state from the study about the history of Jeju-do.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between assailants and sufferers were bring a whole liberation of the Han and make the conclude from an existing endeavor for releasing of the Han.

Purely reconciles and forgives is difficult things for the mankind. So much as, it is may be hard to find the way in itself for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So, we need the guide who present one with a way for release from the Han. This duty is must performed by the church. The church which have to lead everyone to Jesus Christ of 'the way, the truth, the life', so the church doesn't indifferent to its place of a guide. The church must rush into the Han of the pent up in the people's heart and must see the mind of irreconcilable and unforgiveness of an unpleasant feeling in the people's heart. And that time, the church will be placed in people's heart.